

금주의 기도

시간이 가고 세상이 변해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혹독 박해불구 믿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WWL, '2020 기독교박해지수, 북한 18년째 No.1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3:12). “매 일마다 세계에서 그리스도 8명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당한다. 매 주마다 182개에 달하는 교회당이나 교회 건물들이 공격을 받는다. 매 달마다 그리스도 309명이 부당하게 투옥 당한다.”

해마다 오픈도어선교회의 산하기관인 월드와치리스트(WWL)는 박해받는 73개 국가들 가운데 탄압과 핍박의 강도가 높은 지역 50개 국가를 발표하고 있다. 2007년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은 1억 명에 불과했지만 10

여 년이 지난 2019년에 와서는 2억4천5백만 명을 넘고 있다. 기독교 박해순위는 “억압”과 “폭력”의 강도를 평가해 매겨진다. 즉 첫째, “억압”은 개인, 가족, 공동체(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의 다섯 가지 생활영역을 조사해 평가한다. 둘째, “폭력”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조사하고 평가해 점수를 합산해 해마다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월드와치리스트는 기독교 박해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한다.

2020 기독교 박해 동향 분석

1.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취약 지역에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세력 확산

리비아의 권력 공백 이후, 돈, 무기, 마약, 조직범죄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세력이 사하라이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단체들의 수만 적어도 27개 이상이다.

2. 남부와 동남아시아에 이슬람 과격주의 확산

IS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테러단체가 2019년 4월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 교회들을 공격해 25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필리핀 남부 줄로 섬에서도 교회에 대한 테러로 2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당했다.

3. 중남미 기독교인들을 타깃으로 삼는 조직범죄의 확산

부패 스캔들로 정부의 힘

순위	국가	사상형 박해지수	가정생활 박해지수	지역생활 박해지수	국가생활 박해지수	교회 생활 박해지수	총계 지수	동향
1	북한	16.7	16.7	16.7	16.7	16.7	131.1	94
2	중국(타이완)	16.7	16.7	16.7	16.7	16.7	100.0	93
3	소말리아	16.5	16.7	16.6	16.6	16.5	98.4	92
4	이라크	15.3	15.5	15.8	16.0	16.4	113.3	90
5	미얀마	14.0	13.9	13.0	14.9	13.7	106.7	88
6	베트남	14.5	14.9	15.9	15.9	15.4	109.9	87
7	우즈	14.2	14.6	14.5	15.7	16.1	108.4	85
8	에티오피아	14.6	14.4	14.4	16.7	16.7	108.3	85
9	이란	14.1	14.3	14.1	15.8	16.5	108.4	85
10	인도	13.8	13.0	13.5	15.0	13.5	104.8	83
11	시리아	13.5	14.2	13.0	13.8	14.4	102.8	82
12	나이지리아	12.2	11.9	13.5	12.8	13.0	101.7	80
13	사우디아라비아	15.1	14.9	14.1	15.5	16.5	2.4	79
14	몽골	15.4	15.6	14.0	15.9	16.6	0.7	78
15	이라크	14.0	14.6	13.9	14.5	13.6	5.6	76
16	아랍	12.1	13.1	10.7	13.2	10.5	16.1	76
17	말레이시아	13.5	14.3	10.4	12.8	13.2	8.3	73
18	우즈베키스탄	15.1	12.9	14.1	12.2	15.7	3.0	73
19	미얀마	11.8	11.9	13.5	12.5	12.2	10.7	73
20	라오스	12.8	9.9	14.1	14.4	14.9	5.6	72
21	베트남	12.3	8.5	12.9	13.6	14.5	9.8	72
22	몽골(타이완)	14.5	11.2	13.8	13.3	15.7	1.9	70
23	중국	11.6	8.4	11.6	12.8	15.1	10.2	70
24	모리타니	13.9	14.0	13.0	13.7	13.4	0.2	68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1	9.1	13.1	9.8	10.2	15.6	68
26	인도	12.4	13.3	10.8	11.7	14.1	4.1	66
27	카메룬	13.6	13.4	10.8	12.2	14.1	2.2	66

이 약해지면서 조직적 범죄 집단과 민병대가 활기를 띠고 교회와 기독교지도자들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4.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는 박해의 위험: 보안 감시 강화

중국인 사회신용시스템(SCS: Social Credit System)을 시험운영 중이고, 2018년

9월 종교에 관한 온라인 정보들을 억제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리는 등 교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3면 시론 김인환 목사



7면 개혁의 방향을 - 조진모 목사



16면 투고칼럼 - 배현찬 목사

5. 갈등과 불안정으로 인한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독교 쇠락

거의 9년간의 시리아 내전과 수년 간의 이라크 분쟁은 기독교 공동체를 계속 황폐화시키고 있다. 2003년 이전에 150만 명에 달했던 이라크 그리스도인 인구는 현재 202,000여 명으로 87%나 감소했다.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보고된 기독교 박해 통계를 보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그리스도인 수: 2,983명 △스크리치들은 재판 없이 구금, 체포, 형 선고, 수감: 3,711명 △스크리치들을 유괴함: 1,052건 △스크리치들은 강간 또는 성희롱을 당함: 8,537건 △스크리치들의 비기독교인과의 강제 결혼: 630건

(3면으로 계속)

사 고

'2019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20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뉴욕, 뉴저지 지역

- 한국서적 (718)762-1200
- 할렐루야 기독교화점 (718)762-0011
- 할렐루야 기독교화점(NJ) (201)373-0029

서부지역

-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 도르가기독교서점(OC) (714)636-7430
-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 복음사(OC) (562)865-4299
- 두란노서적 (213)382-5400
- 조이기독교화점 (213)380-8793

기타지역

- 커투티켓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583-0191
-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 버지니아 주 예수교회 (804)560-7500
-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 텍사스주 유니온장로교회 (215)945-1512
-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계사 (704)332-5656
- 북가주 한인기독교교회 방송국 (408)433-0001
- 조지아 아틀란타 생명의말씀사 서점 (678)957-1021

미주크리스천신문사

- NY사무실 (718)886-4400
- LA사무실 (323)665-0009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213)388-1000 | 50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말씀, 성경대디,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1919@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역 상담, 영성공역, 생가독집 주문 제작, 타월, 선불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330-8080 | bibvestor@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입학문의 admissions@gm.edu
714-525-0088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inICS)
- 선교학 박사(D.Miss)
- 목회학 석사(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 선교학 석사(MA ICS)
- 기독교 상담학 석사(MA CC)
- 신학사(BA)
- 기독교 상담학 학사(BA CC)

특혜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 English Track
- LA Extension Class
- 유학생 1-20 발급
- 연방정부 학비보조(Federal Student Aid)
-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석사과정까지 100%)
-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축' 한인 신학교 최초로 칼그랜트 승인 !!!

칼그랜트 신청 및 안내 세미나

- 일시 및 시간: 1월 27일(월), 오후 2시- 3시 30분
- 장소: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 GL2 강의실 (도서관 주소: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 연락처: 714-525-0088 (대표전화), 도서관: 714-515-5431
- 주요 내용: 학교 소개 및 현황, Cal Grant 소개 및 자격, GMU 입학 안내, 질문과 답변

2020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중

-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Pell Grant 와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Cal Grant(칼그랜트) 승인
-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GMU에 입학하게 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Pell Grant 와 주정부 차원에서 Cal Grant 두 가지 Grant 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Cal Grant 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 의 홈페이지(https://www.csac.ca.gov)를 참고(GMU School Code: 041578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 www.gm.ed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 발행인 칼럼 ●

천국은 없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며칠 전 기생충을 보았다. 전 세계 영화계에 연일 화제를 뿌리며 지금은 곧 있을 아카데미상 여러 부문에 후보가 된 영화이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보는 이에 따라 이 영화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빈부의 구조적 문제를 선명히 담고 있다. 전체 줄거리에 “거짓과 폭력”을 방법으로 한 계급투쟁의 요소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줄거리는 얼듯 그렇게 보여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계급투쟁의 사악한 방법론을 새삼 다시 꺼내들어 세상을 과거로 돌이키려는 의도가 이 영화의 주제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영화는 가진 자와 없는 자로 편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옥과 천국의 이야기이다.

가난한 자들의 반지하방이든 부자들의 대궐 같은 집이든 이 세상은 여전히 지옥일 뿐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수단을 써서 가고자하는 곳은 그저 지옥에서 또 다른 지옥으로 가는 것 뿐이다.

요즘 수개월 동안의 산불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는 호주에서 오래 전 있었던 일이었다고 한다. 교도소로 매일 빵을 배달해오는 트럭이 있었다. 그 교도소의 한 죄수가 그 트럭에 몰래 숨어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는 먼저 모범 죄수가 되려고 애썼고 마침내 빵을 싣고 나르는 부서에 배치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왔다. 그는 트럭 안의 빈 박스에 몸을 숨겨 지극히 조심스럽게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차가 한참을 달려 어느 장소에 멈추었다. 인기척이 없는 틈을 타 박스에서 빠져나와 트럭 밖으로 뛰어내렸더니 이게 웬일인가? 자기가 내린 장소 주변에는 여전히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고 총을 가진 교도관들이 여기저기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연실색(啞然失色)하여 찬찬히 둘러보니 그곳도 교도소였다. 자기가 탔던 트럭은 이곳저곳의 교도소들을 왕래하며 빵을 공급하는 교도소 전용(?) 트럭이었다. 그 죄수는, 자기가 잡혀있던 교도소에서 탈출했다고 좋아했건만 단지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영화 기생충에서 지옥같이 지극히 지극한 반지하방에서 살던 가난한 가족 네 명이 거짓과 거짓을 이어 부잣집으로 한명 한명씩, 결국 다 들어간다. 힘들어(?) 들어간 그곳이 천국이던가. 그 화려한 집 지하에 만들어진 방공호는 확실한 피난처나 영구한 안식처이던가. 아니다. 그곳은 넘어지고 깨지고 죽이는 끔찍한 또 다른 지옥이었다. 다 끝난 것 같던 영화는 그 부잣집의 지옥을 경험한 자가 여전히 그 집을 향한 욕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엔딩 자막을 올린다.

영화 감독자에게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영화 기생충은 모든 인류에게 천국은 스스로 만들거나 쟁취할 수 없다는 경종(警鐘)을 울린다. 그렇다. 천국은 없다. 이 세상에 그들이 욕망하는 그런 천국은 없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기생충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제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타락한 인생이 가는 곳은 여전히 지옥일 뿐이다. 그러나 기생충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천국은 있다.

시진핑 신격화로 종교 억압하는 중국

Bitterwinter.org, 시진핑 개인숭배 하나님자리까지 위협하는 속사정 보도

종교 말살에 혈안이 된 중국 전체주의 정권이 예배소를 철거하고 사찰과 모스크, 교회 건물을 빼앗아 자기네를 멋대로 정부기관으로 사용하면서 종교 상징물들을 시진핑의 초상화나 선전 자료들로 바꿔 놓는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현재 시진핑 개인숭배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치달고 있다. 이제는 예배소뿐 아니라 개인의 집에서도 종교 상징을 치우고 그의 초상화를 걸어야 한다. 한마디로, 중국의 유일신으로 등극한 시진핑, 그를 믿도록 강요받는 종교인들의 박해가 현재 중국의 속사정이다(How Xi Jinping Became God: The Chinese President, like Chairman Mao before him, is trying to propose himself as an object of worship worthier than god, Bitter Winter has selected some typical reports about this bizarre, yet worrying development).

교사와 학생들을 세뇌해

국영언론에 따르면 2019년 봄을 시작으로 중국 동남부 장시(江西)성에 소재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들은 ‘적색문화’ 교과목을 도입하고 있다.

2019년 2월에 중국북부 허베이(河北)성 헝수이(衡水)시의 당 위원회는 제 19회 당대회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교내에 시진핑 사상 교과목을 도입하라고 관내 교육기관들에 지시했다. 학생들은 ‘대중에 친밀한 핑 언어’, ‘시진핑 할아버지 이야기’, ‘핑 언어 사전’과 같은 저서 등 허베이성 지저우(冀州)구 교육당국이 특별히 발행한 교재를 학습할 것이 요구된다.

“제가 어디에서 태어났든 조국의 피가 늘 제 혈관을 따라 흐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것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국을 사랑할 것을 생명과 명예를 걸고 맹세하며 선서합니다.” 국기 게양식에서 교사가 아이들이 중국과 중국 지도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이끌고 있었다. 9월 25일, 중국 남서부 장시(江西)성 주창(九江)시 관할 용수(永修)현의 어느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장시농업대학은 2018년부터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메시징 사이트인 위챗을 사용해 ‘시진핑 사상을 학습하는 청년들’이라는 온라인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목은 공산주의 역사 및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 수업을 거부하는 자들은 우수학생 선발자격이 없게 된다.

2019년 1월에 중공이 ‘학습강국’ 모바일 앱을 출시한 이래로 모든 당원, 공무원, 교사들은 해당 앱을 다운받아 ‘시

진핑 사상’을 강제로 학습해왔다. 그들은 앱을 통해 기사를 읽고, 연설을 시청하며, 문제를 풀어 점수를 누적해야 한다. 2019년 3월 중순, 신양(信陽)시 평차오(平橋)구에 자

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죽었다. 산동성 허저(澤)시 어느 현의 마을 주민은 고혈압으로 인해 자주 앓는다. 그럼에도 그는 정맥주사를 받을 때조차 계속 시 사상



교회의 벽 중앙에 걸려 있는 시진핑 초상화와 그 양쪽에 붙은 선전구호

모든 교육기관 ‘적색문화’ 교과목 도입, 지도부에 충성맹세 종교사무국 도서실엔 시진핑 연설집 등 배치, 성경은 없어

리한 삼자교회 신자들은 ‘학습강국’을 다운받고 매일 최소 30점을 획득하라는 지역 공무원의 지시를 받았다.

많은 국영기관에서는 계속 ‘업무 감독과 평가’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들이 ‘학습강국’ 모바일 앱에 들인 시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매일 앱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정계당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까닭에 사람들은 당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신들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다투어 ‘시 사상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019년 4월의 어느 날, 동부 산둥(山東)성 출신의 한 당원이 앱에서 문제풀이를

학습한다.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 정령된 예배소와 신자들의 가정

중부 허난(河南)성 위양(洛陽)시의 한 현에 위치한 국영 삼자교회조차 거듭된 요구를 받고 십계명을 시진핑 주석의 어록으로 대체했지만 정부의 질책을 면할 수는 없었다. 통일전선공작부 직원들

은 2019년 6월말 신자들에게 “모든 면에서 당에 복종해야 한다. 당이 시키면 따라야 한다. 아니면 교회는 즉시 폐쇄될 거다”라고 훈시했다. 삼계명이 중국의 거의 모든 삼자교회와 예배소에서 제거되어 시진핑의 어록으로 대체됐다. 2015년 5월 18일의 중앙통일전선공작부 실무 회의에서 나온 시진핑의 다음 연설내용도 있었다. “다양한 종교를 상대해 사회주의 핵심가치로 인도하고 중국문화를 스며들게 하며,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종교 사상, 교리 및 가르침을 해석하는 종교계를 지지하라. 서구 사상의 침투를 단호히 경계하고 의식적으로 극단주의 사상이 끼치는 영향에 저항하라.” 2019년 7월부터 북부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에 위치한 한 불교사찰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시진핑의 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사찰 승려들은 매일 시주석의 제19차 전국인민회의 연설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현지 종교사무국은 신자들에게 연설에서 깨닫게 된 점에 대해 2천 자 이상의

분량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라고 요구한다. 2019년 5월 말, 현지 종교사무국에서는 모든 종교 장소에 도서실을 설치해 신자들이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진핑 연설집, 국가의 법률 및 규정, 중국 전통 문화 등의 서적을 비치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 (대표) (323)665-0009(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광고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0학년도 겨울 및 봄학기 학생 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0학년도 겨울 및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정**
 1. 학사 과정 (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 (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 (M.Div.): 대졸자
 4. 박사과정 (우측내용 참고)
 5.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6.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각종 장학금 (성적, 근로, 총회 및 이사 장학금)
- 2020학년도 봄학기**
 - 원서 마감일: 2020년 1월 31일
 - 개강 수련회: 2020년 1월 28일, 29일 오후 7시
 - 수업 기간: 2020년 1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2020학년도 겨울학기 개설 과목

- 과목명: PT-705 현대설교학 (Modern Homiletics)
- 담당교수: 박대근박사, 한주식박사
- 일정: 1/20/20 (월) - 1/23/20 (목) 오후 7:00-9:45

2020학년도 봄학기 개설 과목

Date (7-9:30pm)	Course Name 과목명	Prof 담당교수
Tue. (화)	Pentateuch (모세오경)	김동진교수 Th. D
Wed. (수)	General Epistles (공동서신서)	정인채교수 Ph. D
Thu. (목)	American Presby Church History (미장로교회사)	최희규교수 D. Min

○ 문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박사 과정 안내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은 California BPPE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 목회학 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단체 지도자
- 졸업학점: 36학점 (논문 12학점 포함)
- 학비: 학점 당 150불

(2) 신학 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혹은 신학석사 (Th. M) 소유자
- 전공 분야: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일 (입학시)
- 졸업학점: 48학점 (논문 12학점 포함)
- 학비: 학점 당 150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0577, 626-675-8010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도마한인교회)

수사 아벨라르의 사랑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감미로운 단어는 사랑이라는 명사일 것이다. 사랑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남녀 간에 일어나는 애절한 마음이다.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타산적으로 반응하지 옛날처럼 사랑하나만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만큼 삶이 힘 들기 때문이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한다. 짝지만 강력하고 이성을 눈멀게 만드는 마약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설에 의하면 성프란시스와 클라라는 연모하는 관계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20대에 만났고 성프란시스에 끌려

수녀가 되었고 사역지도 같은 앗시시였으니 말이다. 병약했던 프랜시스는 늘 돌봄을 필요로 했는데 그런 사실을 아는 클라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녀원에 와서 요양하기를 바랐다고 한다. 그러나 강론을 위한 목적 외에는 결코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속내를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다 여겨진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사랑을 추구한 중세의 탁월한 수도사가 있었다. 그는 불란서의 아벨라르(Abelard 1079-1142)와 옐로이즈(Heloise 1100-1163)이다. 아벨라르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다. 그는 당시 어떤 사람과 논쟁해도 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수사학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이는 최고의 석학이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전 구라파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느 때는 5천명이나 모였다고 한다. 스콜라철학의 아버지로 근세철학, 논리학, 언어학, 신학에 그의 이름이 빼짐없이 등장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다. 역사가 호이징가는 그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창조적인 자로 12세기가 낳은 대 학자라고 칭했다. 1117년에는 교황과 추기경 19명, 50명 이상의 주교와 대 주교가 한꺼번에 그의 강의를 들었다. 30대 중반에 학문적으로 최고의 자리인 노트르담 성당학교의 강사가 되어 15년 동안이나 강의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사람의 재기 발랄한 소녀가 나타났는데 그녀의 이름이 옐로이즈다. 명석하고 아름다운 그녀를 성당의 참사인 삼촌이 최고의 학자인 아벨라르에게 조카 옐로이즈의 가정교사를 부탁했다. 당시 아벨라르는 39살이었고, 옐로이즈는 16살이었다. 당시 옐로이즈는 앞날이 촉망되는 대단한 재기를 보이는 소녀였다. 아마도 그런 조카를 최고의 석학인 아벨라르가 지도한다면 놀라운 학문의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남녀의 관계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순수한 지식에 대한 열정에서 차츰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옐로이즈는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 아벨라르를 향한 존경심이 사랑으로 변하고 있었다. 수사 아벨라르 역시 옐로이즈의 번뜩이는 천재성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같이 깊은 눈에 풍덩 빠져버리고 싶은 격정, 노도와 같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코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으며 학문하는 순간이 어느 사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드디어 저들은 공부하는 뒷전이고 사랑하는 일로 바뀐 듯이 되었다. 훗날 아벨라르의 고백록에서, 책은 펼쳐져있지만 철학공부보다 사랑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수없이 오갔으며 학문에 관한 것보다 입맞춤이 더 많았네. 손은 계속 그녀의 가슴을 오르내렸고.... 1년 동안의 치열한 사랑은 아이를 임신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당시 덕망 높은 수사의 이런 행동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당시 신학자는 철저하게 독신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았다. 이벨라르의 찬란할 앞날을 위해 옐로이즈는 무섭게 반대하였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누구보다 분노한 사람은 바로 삼촌이었다. 고향이에게 생선을 맡긴 풀이라고 흥분한 삼촌은 종을 시켜 자고 있는 아벨라르의 성기를 자르게 했다. 레위기에서 남자의 성기에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은 물론이고 성막 봉사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아벨라르의 정신적 고통은 대단했을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각각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옐로이즈는 한 남자에게 품었던 사랑을 하나 남게 돌리고 이제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편지 왕래는 지속했다. 아벨라르는 맨손으로 파라클레 수도원을 일구었고 옐로이즈 역시 수도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운영하는 수도원이 폐쇄하게 되자 아벨라르는 자신의 수도원을 그녀에게 넘겨주고 수도원을 위해 모금까지도 했다. 두 사람의 로맨스는 온 구라파 청소년들의 사랑의 노랫말이 되었다. 우리의 춘향전처럼... 아벨라르는 죽기 얼마 전에 이단의 판정을 받았고 그 일

에 앞장 선 사람이 당시 가장 뛰어난 영성가 시토 수도원장 클레르보 베르나르도였다. 그러나 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옐로이즈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아벨라르가 63세에 세상을 떠나자, 뜨겁게 사랑했던 옐로이즈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에 무덤을 쓰도록 했다. 옐로이즈의 강력한 요청으로... 그 후 옐로이즈도 63세에 세상을 떠나자 두 사람을 합장했다. 죽어서라도 못 다한 사랑을 나누도록 말이다. 그녀는 이런 시를 남겼다. "나는 가혹한 운명을 당신과 함께 모두 견디어 냈습니다. 칭하오니 이제 당신과 함께 잠들게 하소서. 빛이 있는 쪽을 향하게 하시며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1792년 파라클레 수도원이 해체되어 1817년 두 사람은 페르라세즈 공동묘지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그토록 가슴절절하게 사랑했던 두 사람은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겨우 1년 동안이었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본받아도 좋을 사랑일 것이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풍운 목사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본문은 빌닷이 욕에게 한 말이지만 빌닷을 통하여 욕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기를 원합니다. 밝아온 2020년도 새해가 모두에게 본문의 말씀처럼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구조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논리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간추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경건한 집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커지도록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더 나은 한 해를 위하여 제시하는 세 가지 조건을 묵상하고 적용해 봅시다.

이미 단았고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새벽 4시에 그 회사에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관계자에게 사정을 말하여 직원들이 쓰레기 30톤을 뒤져서 반지를 찾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통 하지 않는 일이지만 부부가 너무 애절하게 부탁을 하므로 처음으로 도와준 일

이에게 빌면" 빌다는 말씀은 겸손하게/진실하게/계속하여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줄지도 주 무시지도 않으시지만 간절히 비는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

를 받게 하시니까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사62:7)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빌다는 말씀은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거절을 당하고도 "주여 옹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씀드린 그 여마의

했다고 합니다. 소녀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밤 주님의 어린양인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그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간호사들이 보지 않도록 돌아서서 난생 처음 눈물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그 결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건강도 빨리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 한해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면 돌아보시고 회복해 주시고 부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파는 역으로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여 정결하고 정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국민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바라는 중요한 자질도, 역사의 바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바라시는 것도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84편 11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 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 위하여 성경을 많이 알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기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할지라도 청결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덕을 무너뜨리며 전도의 문을 막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살씩 더 들고 주님을 만나기까지 일년이 단축된 새해가 지난 어느 해보다도 더 나은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wkim529@gmail.com

더 나은 한 해를 위하여

욥기 8장 5-7절

이라 했습니다. 결혼반지를 찾아준 사람들과 부부가 기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해의 길을 떠나며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 1순위의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삽시다. 간혹 그 하나님의 1순위 자리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밤새도록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리라"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앗수르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왕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 앞드려 옷을 찢으며 앞드려 빌었습니다. 그 결과 그날 밤에 아수르의 18만5천 명이 송장이 되는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때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모습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딸을 위하여 전능하신 주님께 비는 자세를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수술하여 살 가능성이 10%밖에 안 되는 수술을 앞둔 소녀가 "선생님 저는 자기 전에 주님께 꼭 기도하는데 수술 전에 기도해도 되나요?"라고 묻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의사는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

셋째,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이 삶의 올바른 목적이라면 전능하신 이에게 비는 것은 올바른 자세를 의미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것은 올바른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세우고 비는 자세를 가졌다 해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결국은 잘못 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



히즈핑거 (His Finger)

"너는 아느냐"



지은이 김성국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학부모 권리” 거부한 캘리포니아교육청 상원의원들 5명!

지난 1월 15일 새벽 6시30분부터 새크라멘토 주도(State Capital) 앞에는 37도 밖에 안 되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학부모의 권리를 돌려달라” “Vote YES on SB673” “Kids belongs to Parents” 등등의 피켓을 들고 SB673 발의안을 지지하기 위한 학부모, 교역자,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줄줄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회사와 바쁜 스케줄을 다 뒷전에 두고, 북가주에서는 적어도 3시간 이상을, 남가주에서는 10시간 이상 운전하거나 그 전날 저녁 사비를 들여 비행기로 날아온 평범한 학부모, 교역자 그리고 저희 Tvnext 같은 다음세대를 위해 앞에서 싸우고 있는 미국 단체들이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다.

모인 목적은 바로 현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Health Education-건강 교육”이라는 수업이름 아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포르노수준의 수업 이름하고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성교육(Sex Ed)을 더 이상은 숨기지 못하도록, 반드시 학부모들의 허락(permission slip) 받는 것을 의무화 시키는 SB673 상정 여부를 논하는 법정 자리에 지지를 보이기 위해서였다.

오전 9시가 되자 7명의 교육청 상원의원들이 앞에 나와 앉았고, 공청회 법정자리를 가득 채우고 뒤까지 선 사람들은 SB673를 지지하는 대표들의 증언(Testify)이 끝나고 한 시간 넘게 줄을 서서 “I Strongly support SB673”이라고 공식 발언을 하기위해 줄을 섰다.

SB673 지지자들의 끊이지 않는 행진! 참고로, SB673의 지지와 반대를 표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 99% 이상이 SB673 지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SB673 반대자들-현 성교육이 비도덕적이라는 사실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칭 “건강, 의학, 여성우호”단체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줄은 지지자들의 숫자에 비해 1%도 안 되는 숫자로 다 합쳐도 8-9명이었다(지지자들은 150에서 200명 사이). 무엇보다 반대의견을 표하려 온 대표들이 바로 캘리포니아교사협회(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CFT)와 캘리포니아학부모협회(California Parent Teacher’s Association, PTA)라는 사실에 그 자리에 있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PTA, CFT의 모든 선생들과 학부모를 대표하여 반대한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사용했는데, 그 자리에 SB673을 지지하러 나왔던 학부모들로 하여금 앞으로 PTA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답을 당장에 하게 했다.

SB673을 반대하러 나온 시민들은 학부모로 나온 사람들은 안보이고, 포르노수준의 성교육 내용 자체를 만들고 근본적인 resource의 주체인 Planned Parenthood와 ACLU 쪽 사람들이었으며, 그 외 캘리포니아에서 페미니즘 여성운동, 낙태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California Women’s Law Center와 Pro-Choice(낙태지지단체), 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지지하고 거기에 따르는 무분별한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약들을 공급하는 의학전문인이라고 자칭한 단체들임을 알 수 있게 해줬다. 겉으로는 전문성 있는 단체이름으로 나와서 매우 현혹될 수 있지만 그 속을 보면 아이들의 부

nie Leyva 교육청 대표의 “난동자를 데려나가라” 라는 명령어에 “Respect parent” 이라고 한마디 한 학부모가 쫓겨나가고 “Stop lying(거짓말 그만해라)” 라고 한 마디한 학부모가 역시 쫓겨나가고, 한명의 히스패닉은 “거짓말쟁이!” 라고 얘기하며 쫓겨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나간다는 제스처를 하며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좌파 미디어에서는 마치 SB673을 지지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큰소동”을 일으킨 “혐담” “혐오적인” 말을 했다는 식으로 뉴스를 내보낸 곳이 있어서 시민들은 캘리포니아의 주류언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직접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

SB673을 지지하는 편지나 이메일은 총 49,000개가 넘었으며 지지 전화들까지 합치면 50,000 개가 넘는 지지들이었으며, 특별히 이번에는 모든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다른 단체들 숫자까지



모나 다음세대를 진정 사랑하는 단체가 아닌, 자기단체들의 이익이 목적인 단체 운동가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SB673의 결과: 2 대 5로 통과 안됨. 교육청의 총 7명의 상원의원 중 찬성 2명(공화당 전체) 반대 5명(민주당 전체).

한마디 했다가 쫓겨난 학부모들

교육청 대표인 Connie Leyva는 시민들에게 “법정예의”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동의할 경우 소리를 내지 말고 “손을 흔들어야”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잠잠히 있어야” 라고 해서 법정의 규칙을 지키다가 공청회 내내 교육청 상원의원들이 SB673을 반대하러 나온 단체들의 이야기만 인정하고, 현 공립학교 성교육이 매우 건강하고 정상인듯 미화하며 그 자리에 나온 학부모들을 무지한 것처럼 여러모로 왜곡되게 이야기 방향을 끌어가자 도저히 참지 못한 2명의 시민들이 한마디씩 했다가 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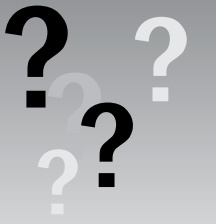
하지면 10만이 훨씬 넘는 숫자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SB673을 지지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되돌려달라고 했다.

거기에 비해 SB673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매우 소수였고 공청회에 참석한 인원도, 나온 사람들도 모두 학부모가 아닌 개인 단체의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교육청 5명의 의원들(민주당)은 이미 약속이라도 했듯이 자신들의 거짓말이 학부모들에 의해 탄로 나자 그들을 내쫓으면서까지 “학부모의 권리”를 거부하였다.

중요! Facebook에서 Tvnext.org를 찾거나 직접 Tvnext.org에 가서 관련 동영상, 사진, 특별히 누가 반대했는지 자세히 정보를 받으신 후 학부모의 권리를 거부한 캘리포니아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전략단체에 꼭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섬기는 안수집사입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새해 교회 부서 조직 발표를 보니 제가 원하는 핵심부서가 아닌 유명무실한 부서에서 일하도록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몰라주시는 목사님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있어 교회 일하는데 사기가 저하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렌지카운티에서 주 집사가

A: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순종과 충성 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 그 실례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싫었지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둘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건축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하지 말고 네 아들 대에 가서 성전건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올해 무슨 부서에서 일을 맡았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믿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고전4:2절 말씀처럼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마태복음 16:2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했는데 제자의 길의 첫 번째 요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lf-Denia”(자기부정)입니다. 자기의 섬섬한 생각과

내 인생의 기여를 하나님 앞에 중립에 놓으라

고집과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기여를 Neutral Gear(중립기어)에 놓아야 합니다.

저는 얼마전 제가 사는 지역의 코스코 세차장에 가서 차를 세차한 적이 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대기하는 곳에 차를 세우니 앞의 주의판에 “차의 기여를 Neutral Gear(중립기어)로 놓아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기여를 빼고 뉴트럴로 바꾸었습니다. 밑에서 레일 같은 기계가 돌아가자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차를 맡겨 두었습니다. 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차는 돌아가면서 어느 곳에 가니 비누거품이 확 나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확 뿌려집니다. 그러곤 마지막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와 말리는 등 자동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때까지 조운이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코스를 다 끝나면서 차는 깨끗하게 세차되었고 저는 기분 좋게 차를 운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좋은 영적 사고를 하였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과 내 마음의 기여를 하나님 앞에서 중립에 놓고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미시는 쪽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기여를 이리저리 바꾸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던 않은가?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생각을 중립기어에 놓고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님, 내 마음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일을 맡깁니다.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20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졸업 예정자로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 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 요일 2:28-32
- (2) 신약주해 : 베드로전서 2:1-10
- (3) 논문제목 : 복음과 율법 관계를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 (4) 설교본문 : 학계 1:1-8
 -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름.
-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기에 이메일 할 것.
 -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면접고시

서류제출요령

-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0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4회 총회기간(5월 12일-15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증서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 a) 일자: 2020년 5월 5(화) - 6(수)
- b) 장소:
 - 동부: 권조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서부: 임마누엘장로교회(Emmanuel Presbyterian Church, 손원배 목사)
 -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응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0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양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장의한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5일-6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처

고시부서기 : Rev. Euihan Jang(장의한 목사)
주소 : 6 Westminster Dr. Londonderry, NH 03053-3436 U.S.A.
전화 : (603) 553-1991 이메일 : euihan@hot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 b) 고시부 서기 : 장의한 목사 (603) 553-1991 euihan@hotmail.com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양수철 목사
서기 : 한일철 목사
고시부부장 : 한재현 목사
고시부서기 : 장의한 목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뿌랑(BULANG)

뿌라 또는 샨타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뿌랑족은 거의 90,000명 정도의 소수 민족이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 남부 중앙지역에 위치한 윈난성(Yunnan) 지방의 산악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뿌랑족의 특징 중 하나는 남자들이 사지와 몸통에 문신을 하는 것이다.



고 토양이 비옥한 숲이 우거진 산악지역에서 산다. 그들 대부분은 해발 5-8천 피트의 고지대에 거주하면서도 농업은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다. 그들의 작은 촌락은 보통 20에서 100 가구 정도 운집하고 있다.

약 80%(71,000명) 이상의 뿌랑족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주로 불교신자들인데, 영적 어두움에서 헤매면서 들을 수도 도울 수도 없는 신에게 매일 울부짖고 있다. 누가 뿌랑족에게 진리를 나누어 줄 것인가?

삶의 모습

뿌랑족 농부들은 건조할, 옥

뿌랑족은 다국어어를 사용하는 종족인데, 자신들의 모국어에 다이(Dai), 바(Va) 그리고 중국어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들은 강우량이 풍부하

수수, 콩, 면화, 사탕수수, 뿌어차(Pu'er tea)를 재배한다. 봄에 남자들이 색깔 있는 대나무 막대를 사용해 구덩이를 파고 여자들은 그 뒤를 따르며 씨를 흩뿌린다. 그들은 작물이 자라는 동안 비료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손으로 잡초를 뽑아낸다. 9월쯤에 작물들을 낮으로 추수한다.

뿌랑족은 또한 대나무로 만든 2층집에 사는데 1층에서는 가축을 기르고, 자신들은 거실 중앙에 벽난로가 있는 2층에서 산다.

뿌랑족 여인들은 매일 근처 강에서 대나무 튜브로 물을 기르고 쌀의 껍질을 까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 그런 후 마을 사람들은 저녁까지 일할 일터(들판)으로 나간다. 다시 촌락으로 돌아온 후, 어떤 이들은 다른 곳을 방문하기 위해 모닥불 주변에 깔이 모이고, 또 다른 이들은 집에서 기름 바른 양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뿌랑족 촌락들은 전통적으로 12씨족을 대표하는(집단들은 같은 조상을 섬김) 약 100 세대의 가구를 이룬다. 모든 촌락사람들은 그 토지에서 일할 수 있지만 각각의 씨족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만약 한 씨족이 그 마을을 떠나면 그들의 지분은 마을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의 자유재산이 허락되기도 한다. 오늘날 뿌랑족 촌락은 이족(異族)사회로 구성되어는데, 즉 다른 씨족과의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뿌랑족 여성은 비털(betel-구장의 잎, 인도산 후추과(科)의 상록 관목-역자 주) 나무열매나 비털 나무잎의 씨를 씹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과일은 그것들이 익기 전에 수확되며 껍질을 까고 삶고 얇게 잘라서 말린다. 그 말린 과일은 검거나 갈색인데 그것을 씹으면 순식간에 잇몸과 입, 입술이 오렌지-브라운 칼라로 염

색된다. 얼룩진 이빨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움의 하나로 여겨지고 또 비털즙 얼룩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므로 여성들은 종종 일부러 자신들의 이빨을 검게 물들인다.

축제기간에는 보통 노래와 춤으로 즐긴다. "반지춤"은 젊은 층에서 가장 인기 있다. 이 춤을 추는 동안 소녀들은 소년들 주위를 반지 모양으로 형성하고 소년들은 노래를 하면서 소녀들을 향해 호랑이처럼 달려든다. 소년들은 또한 "우슈(wushu-호신무술)"를 매우 좋아한다. 그들의 춤은 갈춤, 막대기춤 또는 권투춤과 같은 형태인데 종종 이런 호신무술을 이용한다.

신앙

뿌랑족의 대표적인 종교는 테라바다 불교인데, 이는 붓다를 역사적 인물로 보고 종교적인 삶의 덕목들과 "트리피타카(Tripitika)" 권위를 강조한다.

"트리피타카"(3개의 묶음)라는 것은 '자기 훈련(self-discipline)', '절교', '교리토론'을 말한다. 불교신자들은 올바른 생각(정도), 제사의식, 자기 부인을 통해 그 영혼이 "니르바나(nirvana-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윤회사상, 즉 현재에서 각 사람의 안녕(well-being)은 전생에서 그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가르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뿌랑족을 위한 기독교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이 없고 선교단체도 없다. 성경은 아직 뿌랑어로 번역되지 못했다. 자기부인적인 행동들이 결코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들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기도권 보장' 새 지침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공립학교 내 기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할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학생들이 기도를 못 하게 하는 공립학교엔 연방지원금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했으며 기독교인과 유대인, 무슬림 학생, 교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미국 종교 자유의 날이었다. 미국 교계에서는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 지침은 2003년 개정된 공립학교 내 기도에 관한 교육부 지침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당시 지침은 "지역의 교육기관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도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부인하는 어떤 정책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새 지침은 기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각 주 교육 당국이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했다. 종교적 차별이 발생한 경우 당국이 소송을 비롯한 공개적 대응에 나서게 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도 허용되며 철저히 운동경기에서도 학생의 자발적 기도가 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학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기도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공립학교 행정관들이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당국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기도를 금지하고, 신앙을 따르거나 나누지 못하게 했다. 이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기도를 제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립학교 내 기도금지를 '문화전쟁'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고 크리스마스를 제거하려 했다. 10년이 나 15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제 우리는 한 바퀴를 돌렸다. 앞으로 이틀 다 제지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복음주의교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텍사스주 달라스제일침례교회 제프리 목사(“기도를 막은)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공격이 있었던 게 맞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전 세계의 종교적 자유를 증진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하버스트교회 그레그 로리 목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종교 자유가 더 강화됐다.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공립학교 기도 금지는 1962년 대법원이 공립학교 교실에서 기도문 낭독을 금지

하도록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학교 졸업식이나 운동경기 등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조치로 확대됐다. 미국 수정헌법은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계 목사, 미국 복음연합 대표 선임

미국 복음연합(TGC·The Gospel Coalition)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줄리어스 김(사진·51) 교수를 차기 TGC 대표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인 위주의 미국 복음주의 계열의 연합체에서 한국계 목회자가 대표가 된 것은 처음이다.



김 선임대표는 “TGC 이사회가 저에게 그리스도를 섬길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 TGC 사역에 जुन법게서 신실하게 축복하시길 기도하며 소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TGC 이사장인 케빈 드 영 그리스도연합교회 목사는 “줄리어스 김은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세우려는 열망이 크며 지역교회를 든든하게 해왔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복음을 심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줄리어스 김은 TGC의 목적과 신학, 확신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가치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글로벌 TGC의 역동적 사역을 이끄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자 학생처장을 맡고 있다. 미국장로교(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캘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의 뉴라이프장로교회 부목사로도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 전체 설교: 복음 중심적 설교의 디자인과 전달’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TGC는 2015년부터 이사로 참여했으며 커버넌트, 캠브리지스쿨, 피스메이커미니스트리 등 단체 이사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으나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2세 때 미국으로 돌아왔다.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서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이후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와 트리니티인터내셔널대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영국 캠브리지대, 한국 햇빛트리니티대학원대 방문 교수로도 활동했다.

TGC는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중심적 신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2005년 미국에서 창립된 기독교 연합 기구이다. 세계적 신학자인 DA 카슨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명예교수, 리디머시티투시터 이사장 팀 켈러 목사, 존 파이퍼 디자이너링 설립자, 케빈 드 영 목사 등이 핵심 리더십을 형성해왔다. 한국에서는 2018년 11월 TGC코리아(대표 박태양 목사)가 설립됐다.

‘美 원정출산’ 금지 입박...새 이민강령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을 엄중 단속하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 강령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19일 3명의 미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원정 출산과 관련해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원정 출산이 산업화되면서 다수의 범죄 행위와 결합되고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미국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지주의 시민권 제도’를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반이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다. 한 고위 관료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원정출산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친(親)트럼프 성향의 이민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3만3000명의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원정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이 가장 많은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나이지리아를 지목했다. 악시오스는 새 제도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민권 보호 조항을 외국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막는데 미 행정부가 얼마나 많은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B비자(방문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정출산의 의심될 경우 미 국무부 관료들이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고위 관료는 “여권과 비자를 발급하는 미 영사관 직원들은 진실과 거짓 주장을 알아차리는 데 매우 능숙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새 제도가 도입됐을 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 비자 사무소에서 과거 법률 고문으로 일했던 제프리 고르스키는 악시오스에 “문제는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할 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관련 비자를 새로 발급 받는다는 점”이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사전에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정출산 목적이 아닌 사업 상 출장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임신 여성들의 경우 그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 세계 20위...7위 미국은 '신뢰' 역대 최저점

전세계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최고의 국가'에서 한국이 20위를 차지했다. 1위는 스위스였고, 캐나다와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7위를 기록했다.



미국 순위조사 전문매체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는 1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2020 최고의 국가들’(2020 Best Countries)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73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22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전세계 2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스위스는 이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캐나다, 3위는 일본이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일본이 2위, 캐나다가 3위였으나 올해는 캐나다와 일본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

2016년 시작한 이 조사는 팬실베니아대학 와튼스쿨 연구팀 등이 만든 평가모델을 토대로 순위를 산정한다. 삶의 질, 국력, 기업 개방성,

경제발전 가능성, 문화유산, 기업가 정신, 문화적 영향력, 시민자질, 모험관광 등 9개 범주 65개 세부항목을 놓고 2만여 명에게 조사 대상 국가에 대한 인식을 물어 점수를 낸 뒤 이를 합산한다.

한국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기업가적인지를 측정하는 기업가 정신(7.6점)과 정치·경제적 영향력 및 군사력 수준을 보여주는 국력(5.8점)에서 각각 8위와 9위를 차지했다. 반면 관광 매력도를 측정한 모험·관광 항목에서는 1.4점을 받아 55위에 그쳤다. 관료주의와 제조 단가, 부패, 세계 혜택 등을 평가하는 기업 개방성(5.1점)은 31위에 머물렀다.

이 매체는 한국에 대해 “첨단기술, 서비스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성공사례”라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현재 세계 7위의 수출국이자 전체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소개했다. 또 “삼성, 현대, 기아차 분사가 있는 곳”이라며 기술과 자동차를 주요 수출품이라고 언급했다.

앞선 3위까지의 국가 외에 10위 안에 포함된 국가에는 독일, 호주, 영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는 12위, 중국은 15위, 싱가포르는 16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대로 하위 5위 국가(69-73위)는 튀니지, 벨라루스, 오만, 세르비아, 레바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력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은 나머지 범주에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하며 종합순위 7위에 머물렀다. 특히 여러 세부항목 중에서 '신뢰'가 100점 만점에 16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받았다가 미국 CNN방송이 전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지난해보다 세계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또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국수주의가 확산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중국인구 14억명...전세계 5명 중 1명 중국계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중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5500만명으로 1년 전보다 467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인구 약 78억명 중 중국 인구 비중은 18%에 이른다. 여기에 대만과 중국의 특별 행정구인 홍콩·마카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화교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은 중국계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최근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중국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3.34%였다. 출생인구도 1465만명으로 이전 해보다 줄었으며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10.4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은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도 한국과 비슷하다. 연령별로 16-59세의 노동 연령 인구가 8억9640만명으로 감소해 전체의 64.0%였다. 60세 이상은 2억5388만명으로 증가해 18.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1억7603만명(12.6%)으로 늘었다.

도시 상주인구는 8억4843만명으로 1706만명 늘었지만 농촌 인구는 5억5162만명으로 1239만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의 비중은 60.6%로 높아졌다.

성별 인구는 남성이 7억1527만명, 여성은 6억8478만명으로 성비는 104.45다.

청교도혁명
혁명은 개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혁은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 점진적으로 바꾸고 고쳐가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이에 반하여 혁명은 근본적 변화를 위해 기존의 것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급진적 행동이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 이전 사회는 군주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체제에 놓여 있었다. 특권계급으로부터 지나친 의무부담을 강요당하던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적어도 그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Louis XVI, 1754-1793)는 기존 권력을 거부하는 반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드러낸 거부감은 개혁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집단으로 행동했다. 그것은 기존체제를 전복시킨 후에 새로운 국가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물론 폭력이 정당화 되었다. 결국 혁명의 결과로 루이스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했고, 프랑스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프랑스혁명'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혁명'이라는 단어의 중심에 '하나님의 때와 목적'이란 종교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근대 유럽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혁명'이란 단어가 지닌 의미가 전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혁명' 역시 기존의 체제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시도한 사건이다. 찰스 1세(Charles I, 1600-1649)가 통치하던 내내 로마가톨릭교회와 청교도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다. 영국국교회의 수장이었던 찰스 1세가 로마가톨릭교회를 옹호하는 대신 청교도는 심하게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이 의회파 군대를 앞세워서 전제군주를 대항하며 혁명을 주도했다. 그 결과 왕당파가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찰스 1세는 단 칼에 처형당했다. 이로서 영국 최초로 왕이 없는 국가 즉 공화정이 시작되었다.

찰스 1세를 대항한 '청교도혁명'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운동이었다. 그는 왕권신수설에 근거하여 왕은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왕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곧 신이 하는 일에 대해 부당하게 참견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 신성모독과 무신론적인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신하는 신성불가침인 왕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의무만 지닐 뿐이다. 영국 국민들이 오랫동안 왕권신수설을 신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청교도들이 찰스 1세가 주장한 하나님의 통치방법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를 혁명적으로 대항

하였다는 것이다.

개혁의 열매
'청교도혁명'은 다른 혁명을 불러왔다. 올리버 크롬웰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Richard Cromwell, 1626-1712)이 호국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를 대항하던 세력이 그를 축출하자, 프랑스로 망명했던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5)가 귀국하여 왕위에 올랐다. 결국 1660년, 공화정 정부가 몰락하고 왕정복고가

개혁의 땀방울-무엇을 기대할까? (1)

이뤄졌다. 왕당파는 이 사건을 '영광스런 혁명'이라고 부르며 자축하였다. 이후 1688년, 영국에 또 다른 혁명이 발발했다. 큰 유혈사태 없이 명예롭게 이뤄졌다고 하여 '명예혁명'이라고 불린다. 이로서 왕권신수설을 중심으로 지속되던 정치적 갈등이 종식되었다. 1689년에 작성된 권리장전으로 인해 영국에서 전제군주제가 영원히 사라지고 세계 최초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혁명이 다른 혁명을 불러옴으로서, 혁명이 지닌 한계를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돌이켜보면 '청교도혁명'은 향후 근대사회와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였

것도 아니었다.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비쳐진 중세교회의 모습은 개혁의 대상이었다. 중세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감동제도를 극대화시킨 결과 절대적인 교회제도로 발전시켰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2가지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교회와 국가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고 확신하였다. 복리에 관심을 쏟는 국가와 달리,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담당하며 섬기는 기관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중세교회는 큰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한때는 교회의 힘이 유럽을 완전히

또한 외형적 조직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고 확신하고 성도들이 아닌 성직단이 중심된 체제를 구축하였다. 교회 안에 이중 계급, 즉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교회론을 확립시켰다. 절대군주인 교황을 교회의 머리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 아래 성직자들도 계급 구도 안에서 철저한 상하 관계를 유지시켰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거듭난 영적 무리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회를 향해 개혁을 요구하였다.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교회가 하나님께 교회에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것을 분배하는 기관임을 자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치하여, 구원과 죄에 대한 용서를 베푸는 중재역할을 담당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신앙의

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법과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혁명'은 '청교도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혁명'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바꾼 사건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떤 혁명적 방법도 허용되며, 환경을 초월하여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다. 민중들의 혁명적 열정이 기존의 권력 구도를 깨뜨렸다.

'프랑스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 국가들은 혁명의 불똥이 자국으로 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혁명적 사고가 소리 없이 널리 확산되고 지속되었다. '러시아혁명'을 포함한 혁명적인 사건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쳤다. 혁명적 사고는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온갖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을 위한 소망의 도구로 세워진 교회가 도리어 복음전파의 걸림돌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오래전부터 교회가 고쳐지고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개혁의 방법이 어떤 것일까?

교회가 개혁의 함정에 빠져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종교적 포장 속에 숨겨진 극히 인간적인 혁명적 행위가 순환되고 있다. 세속적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용하고 있다. 혁명은 잠시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그러나 종교성을 감소시켰다하여도 인간의 지혜가 담긴 정치적이거나 물리적 힘을 의지한 혁명은 함정일 뿐이다.

시민들은 '프랑스혁명' 이후 혁명정부를 주도한 자들의 공포정치에 반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혁명정부 주도자들과 민중운동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권력층 내부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경제난과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사회의 불안이 고조되었다. 결국 '프랑스혁명'은 혁명적 사고의 가장 밑바탕에는 극히 인간적이며 개인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으며, 대중을 충동하는 힘이 한계가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마감되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혼동 속에 있는 현대교회가 관심을 지녀야 할 훌륭한 교훈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방법을 자리 잡게 하는 세속적 요소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며 능력임을 고백하는 날까지 개혁의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 함정에 빠진 교회... '하나님의 뜻' 포장 속 인간적인 혁명적 행위 순환 교회는 세상정복 힘 받은 적 없어... '교회=성도의 무리' 버리고 조직화 시켜

단 기쁜 소식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17세기 청교도들이 혁명을 통해 드러낸 종교적 열망에 있다. 그들은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동했던 왕의 주장이 치명적인 신성모독이며 죄악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들을 움직였던 혁명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일반 역사가들은, '청교도혁명'을 소개하며 혁명이 지닌 한계에 대해 논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의 혁명은 다른 혁명이 등장하면서 중단되고 결국 사라진다는 매우 상투적인 해석의 틀에 국한되어 이 시기를 반영하려한다. 그러나 우리는 관점은 이들과 다

장악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권세는 주님께에서 교회를 세우시며 허락하신 영적인 능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들이 정당화하였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할 힘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중세교회는 힘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거침없이 수용하였다. 교회는 성도의 무리라는 가장 보편적 교회론을 거부하고 조직화된 교회를 강화시킨 것이다. 그들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군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이론을 발전시켰다. 교황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라의 황제와 왕 위에서 군림하였다.

의무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은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령의 신실한 사명을 교회의 표지로 삼았다.

개혁의 땀방울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황과 제도를 두어 성도들의 영적 교제를 방해하였다면, 영국국교회는 왕과 로마교회의 제도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 17세기 청교도들에게는 당시 영국국교회가 개혁의 대상이었다. 그들도 종교개혁자들처럼 성경의 진리에 입각하여 교

개혁의 함정에 빠진 교회... '하나님의 뜻' 포장 속 인간적인 혁명적 행위 순환 교회는 세상정복 힘 받은 적 없어... '교회=성도의 무리' 버리고 조직화 시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p>	<p>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Tel: (718)265-2584, www.fkcb.org</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Tel: (718)637-1470</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Tel: (718)461-2810(Fax: 388), (917)373-3411</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www.p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Tel: (718)886-4040, www.kapcc.org</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인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585-1859</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p>	<p>멕시코 현지 교회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Tel: (52)333-3507-4111, hanimkr@hanmail.net</p>

리더십 코멘터리 (103)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2020년을 이렇게 시작하라

새해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

새해를 맞는 사람은 남다른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새해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작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신의 태도에 실망하면서도 좀처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만큼 사람들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현대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화

사람마다 새해를 맞는 자세는 다르지만 자세의 여하에 따라 한 해의 결과가 달라진다. 새해를 맞으면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 ‘신(新)’을 생각한다. ‘신(新)’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 도끼로 가지를 자른다’는 뜻이다. 도끼로 가지를 자르면 새 가지가 나온다. 다시 말해 묵은 가지를 잘라내면 새 가지가 나오는 것이 곧 새롭다는 뜻이다. 나무는 비바람을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는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새해에는 나무처럼 비바람을 안고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라. 나무가 위대한 것은 매일 매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비판자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판단하도록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라.

⑤투명성을 가지라. 투명성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그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당신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겸손히 나를 드러내며 성령께서 변화의 사역을 하시도록 초대하라.

⑥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라.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람들은 리더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된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그들도 리더를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잊지 말라. 행동은 말보다 더 힘이 있다. 2020년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라.

⑦성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라. 리더는 흔히 많은 성과를 내는데 집착하기 쉽다. 할 일은 많고 모든 일이 중요하게만 느껴진다. 사역현장 속에서 리더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결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올해는 많은 성과를 내려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선택하라. 그들은 리더의 보살핌과 사랑을 원한다.

⑧비전을 등한시하지 말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잠29:18).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비전을 세우되, 리더는 모두가 이 비전을 위해 삶을 헌신하게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⑨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 리더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지쳐 쓰러질 때

- ① 영향력 갖기
- ② 판단은 예수님께
- ③ 투명하게
- ④ 말보다 행동
- ⑤ 성과보다 사람 중시
- ⑥ 자신돌보기
- ⑦ 비전 갖기
- ⑧ 균형 찾기

사회는 빠른 것을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삶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데는 이렇게 말한다. “반드시 빨리라고 좋은 것이 아니다. 단추 한 개를 빨리 끼운다는 생각으로 잘못 끼워 놓으면 밑에 가서 낄 곳이 없어지고 옷은 뺄어지고 만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작과 방향이 어긋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빨리 시작했어도 끝이 잘못되고 마는 것이다.

현대의 대표적 인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거나, 내게 그 열쇠를 쥐어 주었다면 나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잠겼을 것이다.”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이다. 비록 의지력이 약하거나 결단이 약하다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리더는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시는 주님을 알고 있다. 결심 격정을 잠시 내려놓고 새해를 손에 쥐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다.

비바람을 안고서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라

일 새롭다’ 것을 실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칼바람이 부는 날에도 입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진실과 성실로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라.

2020년 리더십을 위한 8가지 제안

사람들은 중도에서 쉽게 포기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2020년을 맞는 리더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새해를 맞아 반드시 하는 일 중 하나가 한 해의 목표와 결심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영적리더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8가지 결심들을 제안한다.

①리더십에서 영향력을 주요점으로 삼으라. 자신이 특정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 대해 불평하는 리더들이 있다. 그러나 통제하지 못한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 아직 당신에게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은 훌륭한 성품을 갖추고 결심한 바를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생긴다. 영향력이 당신의 리더십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

②비판에 굴하지 말라. 비판이 거세질 때 굴복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비판에 굴복당하지 말고 성령의

까지 일했거나, 정서적으로 황폐해졌거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카페인 중독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제대로 쉬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다.

③균형을 찾으라. 리더의 삶의 모든 영역(일, 가족, 우정, 사회생활, 건강 등)에서 균형을 찾으라. 이 균형을 찾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절망은 끝까지 건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라고 말했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도중하차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신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길 믿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 달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라.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되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넘치게 채워주시길 바란다. 인내하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형통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믿는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가치인생

새해다! 해가 바뀌었다고 삶에 변화가 그냥 찾아오는 것은 아니리라. 나는 나이가 들었어. 건강치 않아, 피곤해... 이런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최면에 걸려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숲속의 공주처럼, 하나님께 연결된 가치인생이니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라는 다부진 마음으로 그렇게 새해의 장을 열어본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과 몸을 가꾸고 돌보는 것이리라. 삶을 더욱 정성스럽게 살아야겠구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구나. 삶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주고 가야겠구나 하는 다짐들이 꿈틀꿈틀 올라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영성은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그 영성을 향해 내 삶을 공경하며 작품으로 만들어가다 보면 내가 감히 기대하지 않은 삶을 만나리라.

성경 속에는 성공의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는 낙심이 되며 다른 이의 성공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는 이기는 소수와 스스로 낙오자라고 여기며 그들의 이김을 박수쳐줘야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창세기에서 욕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씀한다. 욕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형통한 말인가? 그런데 그가 욕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므로 형통하였다고... 아 그렇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가 형통한 자구나! 가치인생이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자신에게 질문하는 물음이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그 삶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고 끊임없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달음박질처럼 간다. 어떤 이는 큰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겠고 어떤 이는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겠고 어떤 이는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고... 그렇게 천차만별의 소원 뒤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돈이나 멋진 차, 값 비싼 옷이나 높은 지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 안정되게 살고 싶고 많이 베풀며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렇게 소중한 인생으로 가치 있고 기여하고 싶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의 결론은 ‘진정한 나’를 찾고 싶은 것이리라. 가치인생이다.

그렇다. 바쁘고 힘들게 몸을 써서 일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른 시간대를 달리며 사는 우리네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와서 무엇 때문에 이리 뛰고 사는지 본질적인 삶의 목적을 헤집어보며 또 한해를 맞는다. 그렇다! 환경적인 요인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 결정하도록 방지한다면 그는 평생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신세를 면하기 어려우리라. 이 한해, 스스로를 넘어서는 자기초월의 기쁨이, 마친 큰 고목과도 같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있는 가치인생의 안도감과 함께 저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처럼 종만한 생명력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org</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독서(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p> <p>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1:20 영연(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949)854-4010 / 전혜 리스 겸임,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206 S. Hobart St.,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p> <p>Tel: (213)381-2202, www.mpl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엘피티가족원 원장: 박운송 목사 엘피티 패밀리는 (ELPIS)의 뜻은 소망(Hope)입니다. http://www.elpi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전: 365일 24시간 온</p> <p>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한)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위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타운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M.예배: 오전 9:45(10: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찬양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5(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rancecove.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예배: 10시 50분 민 17장 8절 "이름만 모자라 중기의 장막이 들어와 본 권위 질을 위하여 난 아브람의 자랑이 예미롭고 순박한 마음으로 사귀어 살기 열매가 열렸더라."</p> <p>Tel: (213) 924-3340, pimission004@gmail.com 3944 Wilshire Blvd., L.A. CA 90010</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목회서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한국이나 미국이나 새해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인사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밝은 표정으로 화답해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말로만 빌어주는 복, 무언가 입에 발린 소리 같아서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달리 표현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 분은 조금이라도 진심의 그릇에 담아서 해주실까, 그 말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쳐줄까,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

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우 현실적으로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자주 듣는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세적인 복들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성경(특히 구약성경)도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신28:8)처럼 매우 현세적 복을 비는 것을 보게 된다.

성도는 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이런 현세적인 복을 빌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와 수준 때문에 현세적인 복을 주시고, 순종과 응답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굳게 만들어 가시고, 현세적인

복을 통해서 성숙한 복과 천국의 복을 조망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현세적인 복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여덟 가지 복을 말해줌으로 시작한다(마5장). 기독교의 복의 의미는 이 여덟 가지를 빼어 놓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여덟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심령”(5:3), “마음”(5:8)에 관해서 언급하셨다. 주님께서 참된 복은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말씀해주신다. 사람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복을 논하지만 기독교의 복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의 상태임을 말

한다. 여기에서 마음은 물질과 상반되는 의미에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총체적으로 의미해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5:3)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신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복들을 추구하고, 누릴 복을 목표로 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고난과 시련을 받아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5:10). 성경은 이 세상은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치르는 시험장임을 말해준다. 성도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과 없어질 물질에 인생을 걸지 않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참된 복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주지 시켜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말씀해주신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공화히 여기는 것이 복이고(5:7), 타인을 은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복임을 말씀하셨다(5:5). 참된 복은 공화함과 은유함과 진실함으로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세속이 추구하는 것이 내 개인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폐쇄적인 복이라면 기독교는 타인을 향하여 손을 활짝 내미는 열려있는 복이다. 이 세상의 복이 내 개인의 감정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성도의 복은 타인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타인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는 타인을 품에 안고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5:8)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복된 자임을 말씀해주신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슬픔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한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같은 죄인, 나같은 비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니... 나 같이 둔하고 무식한 자가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 이 사실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또 있는가? 복 중의 복은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이 믿어지고, 내가 내 죄로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심이 믿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

성도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무서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 성도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칼그랜트

GMU, 미주한인신학교 최초 CAL Grant 승인 드림법안 해당CA 거주 고졸자 학비보조 가능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는 한인신학교 최초로 칼그랜트(CAL Grant)를 승인받았다. GMU는 이미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 학비 보조인 펠그랜트(Pell Grant)를 승인 받은바 있어 이번 칼그랜트 승인으로 GMU에 입학 및 재학생 중 자격이 되는 자들은 연방정부 학비보조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학비보조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가을학기부터 적용되는 칼그랜트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펠그랜트와 달리, 캘리포

니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중 드림법안에 해당되는 자라면 무상으로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처장 제임스구 교수는 “현재 거주내 칼그랜트 승인을 받고 시행중인 학교는 342개 학교”라 소개하며 “대학을 졸업해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을 갖춘 GMU 학생들은 이번 칼그랜트 승인과 펠그랜트를 통해 모든 학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 특별히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의 경우 이 두 학비보조 프로그램을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돼 이를 통해 학비지원

을 모두 받고도 비용이 남는 재정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며 “칼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학기 성적 평점 B학점, 캘리포니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세금보고 시 저소득자이어야 하며 부모역시 부유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구 교수는 이어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인 사정으로 대입의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직장 때문에 학위과정을 미루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GMU는 야간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 주정부의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이수할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을학기부터 칼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3월 2일까지 GPA 제출 등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따라서 오는 1월 27일(월) 오후 2시부터 본교 도서관 GL2 강의실(201 S. Basque Ave, Fullerton)에서 칼그랜트 신청 및 안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한인들의 입학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m.edu, www.gm.edu (박준호 기자)



총신대신대원 미주동부동문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임원 현 체제유지...김인환 전 총장 박용규 교수 참석 총신대신대원 미주동부동문회 2020년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2020년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가 1월 13일 오전 11시 뉴저지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우종현 목사)에서 열렸다. 모임에는 동문 38명과 사모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김인환 전 총장과 안식학기 중인 박용규 교수가 참석해 환영을 받았다. 1부 예배는 인도 변창국 목사(수석부회장, 81회), 기도 우종현 목사(85회), 성경봉독 정주성 목사(86회), 설교 구자범 목사(회장, 80회), 축시 조의호 목사(57회), 헌금기도 남일현

목사(93회), 광고 이윤석 목사(총무, 80회), 직전 회장 이재철 목사에게 감사패 증정, 우종현 목사에게 임당 축하패 증정, 축도 신성능 목사(66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구자범 목사는 “그리자를 구원하라”(삼상23: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쩌면 다윗에게 아들람공동체에게 그리자를 구원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힘들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우리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라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고 우리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동문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2부 총회는 회장 구자범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임원선출은 회칙 개정으로 인해 임기가 1년도 되지 않은 현 체제를 유입시키기로 했다. 동문회는 지난 10월 박성일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그리스도의 신앙고백’이라는 주제로 가을 수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는 박용규 교수 기도로 마쳤다. 3부는 김세중 목사(95회)의 기도 후 식사와 교제가 진행됐으며, 4부는 이재철 목사(79회) 사회로 윗놀이와 임원진이 준비한 경품 전달 순서가 진행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총신대신대원 미주동부동문회)

‘총신대학교 가주총동문회’로 명칭변경

남가주총동문회 정총 및 신년하례, 회장 김경일 목사 연임

총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회장 김경일 목사)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이 20일 오후 6시 용수산에서 열렸다. 김경일 회장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임정의 목사 개회 기도, 회원점명, 서기보고, 감사 및 회계보고로 이어졌다. 이어 회칙변경을 통해 총신대학교 가주 총동문회로 총회명칭을 변경했다. 임원선거에서는 김경일 회장이 연임됐다. 김경일 회장은 “지난해엔 총신동문들의 친목을 위해 힘썼다”며 “한번 더 회장으로 수고해달라고 연임이 된 것 같다. 총신동문들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동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성 목사(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이재한 선교사(컴미션)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 할고’(시11:3)라는 제목으로 말씀선포를 했다.

이재한 선교사는 “본문말씀은 히브리성경에서는 가정법 if를 써서 만일에 라고 했다. 만일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지금은 이미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번역돼야 한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하나님나라의 정치를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세계 어느 곳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나라가 오는 것이고 그 일은 교회가 해야 한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 선교적 종말 천국복음이 전파되는데 희망은 목사들이다. 마지막 때 쓰임 받게 되는 목회자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양종석 증경회장 축도로 마친 후 만찬과 함께 가진 친교시간은 정총일 목사 사회로 퀴즈와 선물증정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20년 시무 및 이사장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심판선언문에서 자유하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20년 시무 및 이사장 취임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지난 1월 20일 오전 11시 시무 및 이사장 취임예배를 드리고 2020년을 출발했다. 이날 회장 권캐더린 목사와 이사장 장덕진 목사가 취임했다. 회장 권캐더린 목사(뉴욕기쁨과영광교회)는 “역대 회장들의 헌신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동안 기아대책이 했던 선교활동을 회고하며 초심을 갖고 회장직에 임하겠다”고 인사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하는 것”과 “경

영 윤리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사장 장석진 목사(뉴욕성결교회 원로)는 “모든 공직을 내려놓을 나이로 부당되지만 선교하는 일이라 동참했다”며 “전임 이사장들의 터 위에 맡겨 주신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육민호 목사 인도로 기도 전회수 목사, 특송 뉴욕오카리나팀, 설교 장석진 목사, 합심기도(제목: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해, 결연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축

도 박진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장석진 목사는 “주님의 심판선언문”(마25:45-46, 눅10:36-3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본문에서 전율을 느낀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하신 심판선언문이기 때문”이라며 “주님은 이웃사랑을 구원과 연결지어 설명하셨는데 이웃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묻고 “세계 인구의 11%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말더스의 인구론(인구억제정책), 칼막스의 자본론(자본주의체제의 붕괴) 그리고 세 번째로 미션프로젝트로 선교사 파송”을 꼽고 “기아대책이 굶주린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심판선언문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전했다.

2부는 권캐더린 목사의 개회 기도 후 인사하고 이사장을 소개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또 사무총장 박이스라엘 목사가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다목적선교센터 건축경과를 영상으로 설명하며 보고했다. 한편 2월 24-29일 신청자에 한해 선교센터 방문이 가능하다(항공료 921달러).

이어서 이날 방명한 뉴욕목사회 회장 이준성 목사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김인한 장로 식사기도 후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월 30달러로 아동 1명을 후원할 수 있으며 현재 88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선교지는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페루(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코스타리카(김형구 이진미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웹사이트 breadngospel.org

▲연락처: (646)247-8258(회장) (917)667-8555(사무총장)

(유원정 기자)



총신대신대원 미주동부동문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목사회 '칭의론'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주최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칭의론" 세미나가 정부홍 목사(에일대학교 에드워드센터 상임연구원)를 강사로 1월 27일(월) 오전 10시-오후 1시 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의안은 무료이나 "이신칭의"교제는 20달러로 할인된다. 오찬 제공.

▲문의: (718)762-3247 총무 마바울 목사

동부개혁장신 '성경의 땅 배움여행'

동부개혁장신교회(학장 김성국 목사)는 2020년 11월 19일(목)부터 28일(토)까지 8박9일간 성경의 땅 이스라엘 배움여행을 갖는다. 경비는 2700달러이며 신청마감은 7월 31일까지.

▲문의: (718)637-1470, 463-7163

IT 강좌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제공하는 IT 강좌가 2월 8일(토) 오전 11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월 15일-4월 18일 8주에 걸쳐 (2/22, 2/29 No Class)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뉴저지 사무실(2fl 256 Broad Ave. Palisades Park)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컴퓨터 네트워킹 강의로 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준비반이기도 하다. 신청수 20명, 수강료는 100달러(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수강료 보조 프로그램이 있다).

▲문의: (201)461-0909 www.neighborplus.org

주님의식탁교회 성경암송대회

주님의식탁교회(대표 이종선 목사)가 주최하는 성경암송 대회가 10월 12일(월) 오전 9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1차 신청마감은 6월까지 신청료 40달러, 2차 마감은 9월까지 신청료 50달러이며 최종마감은 9월 30일이다. 한국어 성경은 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중, 영어성경은 NIV, KJV, NKJV 중 택일한다. 상금은 최우수상 500달러 및 메달 상장을 수여한다.

▲문의: (347)559-3030

미주여성목회 목회자 세미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김신영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2월 10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좋은목사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인기 목사(울랜드 비전교회 담임).

▲문의: (718)407-7577, (201)937-5775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교협을 돕는 기관...필요한 때만 모여"

뉴욕교협증경회장단 회장 김영식 목사, 부회장 이병홍 목사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정기총회가 1월 21일 오전 11시 베이사이드 거성식당에서 열려 회장 김영식 목사, 부회장 이병홍 목사를 선출했다. 김영식 목사는 "증경회장단은 교협을 돕는 기관이라며 원하면 돕고 원치 않으면 돕지 않으며 필요한 때만 모이겠다"고 말하고 '교협회장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언론들도 칭찬받는 언론이 되라고 조언했다.

이병홍 목사는 "교협을 위해 기도하고 어드바이스하며 간섭해선 안된다"며 "존경받는 교협이 되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는 총무 이재덕 목사 인도로 기도 이만호 목사, 설교 양희철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희철 목사는 "이슬같은 은혜"(시13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을 들어 "먼저, 기쁨이 흘렀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었다. 둘째, 이슬 같은 은혜로 목회했고 지금도 살고 있다. 셋째, 영생이 있음을 알고 기쁘다"며 "요즘 매 토요일 전도하러 맨해튼으로 나간다. 증경회장들도 함께 함으로 영생연기를 바라자"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는 "역대 회장들의 수고와 헌신, 기도에 감사한다"며 "나침반 역할을 해주심에 힘을 얻게 된다. 그 나침반을 따라 더욱 발전하는 교협이 되겠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2부 회의는 양희철 목사 사회로 신현택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선거에 들어가 이재덕 목사가 순서대로 하되 형편을 고려한 중지를 모은 결과를 발표해 회장 김영식 목사, 부회장 이병홍 목사를 그대로 받았다. 이날 모임은 김영식 목사의 폐회기도와 김원기 목사의 식사기도 후 오찬을 갖고 마쳤다.

(유원정 기자)



KAPC 가든노회 2020년 신년하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가든노회 2020년 신년하례예배

뉴욕일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5개 노회 중 가든노회가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0일 오전 10시30분 2020년 신년하례예배를 뉴저지성도교회(담임 허상희 목사)에서 가졌다.

1부 예배는 부노회장 이종식 목사 인도로, 기도 회록서기 오종민 목사, 성경봉독 부회록서기 김지희 목사, 설교 노회장 김재호 목사("내가 무엇을 보느냐?", 암7:1-9), 통성기도, 축도 증경노회장 이원호 목사, 광고 서기 박해창 목사 순서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Let's go together!

뉴욕교협 2020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욕교협이 주최한 2020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지난 16일 저녁 7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예고했던 대로 6시20분부터 리셉션이 시작됐으며 차세대 리더, 개척교회 목회자부부, 구제단체 등을 위한 테이블이 마련됐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Let's go together를 모토로 출발한 뉴욕교협 신년하례에 기도와 물질로 협조해준 교회와 성도들께 감사한다"며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은 Let it go(겨울왕국 OST)하고 이제는 Let's go 하자. 올 한해 성령과 말씀이 주님과 함께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문석호 목사 인도로 기도 특별협력위 이기용 목사, 성경봉독 이사장 김영호 장로,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특별협력위 김종일 목사, 특별합심기도 박마이클 목사(나라를 위한 기도) 하정민 목사(뉴욕교계를 위한 기도), 헌금기도 평신도부회장 손성대 장로, 헌금 UMW선교부용단, 축도 특별협력위 김정호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일 목사(뉴욕성서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뉴욕교협 2020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마치고 순서말은 이들과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것"(엡4: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뉴욕교협이 Let's go together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지만 동기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나 사도바울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 목회의 근본동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며 목적도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이 없었을 때도 복을 주셨다"며 "우리가 믿건 안믿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올 한해 무슨 일을 하던지 같은 동기로 함께 가는 동안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협, 교회, 개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부 하례식은 준비위원장 조

원태 목사 사회로 뉴욕목사회 회장 이준성의 목사의 개회기도 후 국가제창(테너 김건수,



동부개혁장신총동문회 제 14회 총동문회의 밤 참석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일꾼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잊지말라"

동부개혁장신총동문회 제 14회 총동문회의 밤

제 30회기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제 14회 총동문회의 밤이 지난 1월 20일 저녁 7시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조원 목사)에서 열렸다.

총동문회장 정기태 목사(18회)는 참석한 동문들과 교수, 재학생들을 환영하며 "올해 동부개혁신학교가 30회기를 맞았다. 초대학장 장영춘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바탕으로 2대 학장 김성국 목사님의 열정으로 훈련받은 동문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음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바른 개혁신학을 철저히 훈련받아 사역자로 선교사로 뉴욕과 뉴저지, 전 세계에서 복음화를 위해 주님과 열심히 달려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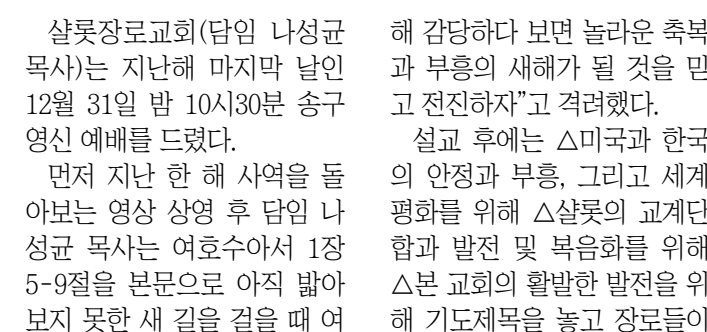
1부 예배는 부회장 장규준 목사(15회) 인도로 기도 문종은 목사(5회), 성경봉독 최미하 전도사(9회), 재학생합창단 특송, 설교 이용호 목사(1회), 헌금특송 소유영 전도사(25회), 축도 김홍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교협회장 양민석 목사는 "변화의 리더십"(수1:7-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순종에 집중함으로 장로연합회 사역을 통해 뉴욕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2부 이취임식은 손성대 장로 사회로 개회기도 김재관 장로, 이임사 김영호 장로, 회기전달, 취임사(회장, 이사장), 축사 허연행 목사, 환영송 목사, 찰스 윤 뉴욕한인회 회장, 권민 윤세웅 목사, 공로패(이보춘 장로, 김영호 장로, 박해용 장로) 감사패(김연창 장로, 손옥아 권사) 증정, 내빈소개 및 광고 신승룡 장로, 폐회 및 만찬기도 박마이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장로연합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8시 조찬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2월 기도회는 후러싱나사렛교회(담임 박해림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살롯장로교회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에서 전기현 장로가 특별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살롯장로교회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10시30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 먼저 지난 한 해 사역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 후 담임 나성균 목사는 여호수아서 1장 5-9절을 본문으로 아직 밝아보지 못한 새 길을 걸을 때 여호수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한한 가능성의 장래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오지의 설교를 전했다.

나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확실한 약속과 보장은 있을 수 없다. 새해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영혼 구령과 정착, 양육, 재생산에 힘을 다

소프라노 그레이스황, 뉴욕우 리교회어린이합창단, 신년사(회장), 내빈축사(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장원삼 뉴욕총영사, 찰스윤 뉴욕한인회장,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 존리우 주상원의원, 론김 주하원의원, 국가조찬기도회뉴욕지부장 강현석 장로), 특별연주(백진주 교수), 시상(송병기 목사, 손성대 장로), 후원금 전달(김영호 이사장), 축가 사모합창단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 만찬은 서기 문정웅 목사 사회로 특별협력위 이풍삼 목사 만찬기도 후 백진주 교수 축하연주, 경품추첨 및 증정, 김종일 재즈퀸텟 축하연주, 이창종 총무 광고, 윤세웅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총동문회 제 14회 총동문회의 밤 참석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일꾼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잊지말라"

동부개혁장신총동문회 제 14회 총동문회의 밤

제 30회기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제 14회 총동문회의 밤이 지난 1월 20일 저녁 7시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조원 목사)에서 열렸다.

총동문회장 정기태 목사(18회)는 참석한 동문들과 교수, 재학생들을 환영하며 "올해 동부개혁신학교가 30회기를 맞았다. 초대학장 장영춘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바탕으로 2대 학장 김성국 목사님의 열정으로 훈련받은 동문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음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바른 개혁신학을 철저히 훈련받아 사역자로 선교사로 뉴욕과 뉴저지, 전 세계에서 복음화를 위해 주님과 열심히 달려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장규준 목사(15회) 인도로 기도 문종은 목사(5회), 성경봉독 최미하 전도사(9회), 재학생합창단 특송, 설교 이용호 목사(1회), 헌금특송 소유영 전도사(25회), 축도 김홍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는 이종원 목사(10회)의 식사기도 후 정인수 목사 사회로 퀴즈대회를 갖고 손한권 목사(5회)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살롯장로교회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에서 전기현 장로가 특별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살롯장로교회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10시30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 먼저 지난 한 해 사역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 후 담임 나성균 목사는 여호수아서 1장 5-9절을 본문으로 아직 밝아보지 못한 새 길을 걸을 때 여호수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한한 가능성의 장래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오지의 설교를 전했다.

나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확실한 약속과 보장은 있을 수 없다. 새해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영혼 구령과 정착, 양육, 재생산에 힘을 다

해 감당하다 보면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새해가 될 것을 믿고 전진하자"고 격려했다. 설교 후에는 △미국과 한국의 안중과 부흥,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살롯의 교계연합과 발전 및 복음화를 위해 △본 교회의 활발한 발전을 위해 기도제목을 놓고 장로들이 특별기도를 했다.

기도 후에는 성찬식을 가졌으며 밤12시 교우들이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며 새해를 시작하고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며 서로 축복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교제와 개인기도 후에는 담임목사의 특별 안수기도를 받으며 축복의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KAPC남가주노회 신년하례회 및 총회 서부지역 목사장로 연합기도회

서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준비논의

KAPC 남가주노회 2020년 신년하례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남가주노회(노회장 최동진 목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2020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50여명의 회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라스브리사(Las Brisas) 식당에서 가진 이날 모임에서 최동진 목사는 1부 설교에서 "복음의 약속을 가진 목사로서 한 마음이 돼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노회 원로목사들의 새해 덕담과 신입 회원들의 인사가 있었으며, 식탁별로 교제를 나눴다. 이날 모임에서는 오는

2월에 열리는 총회 산하 서부지역 연합 '목사장로기도회'를 통해 더욱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다져나갈 것을 다짐했다.

남가주노회는 현재 24개 교회, 80여명의 목사와 노회 파송 장로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목사장로 연합기도회'를 주관한다.

2월 10일, 11일 이틀간 열리는 기도회 강사는 김태오, 사라 목사부부(TVNEXT 대표)로 '동성애 문제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기사제공 KAPC 남가주노회)

총 80명에 13만8천 달러 지급

2020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2020년도 밀알 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을 20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 장학복지기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1년부터 매년 신청자들 중 선별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2020년도에는 풀타임 장학생 7명에게 3600달러, 풀타임장학생 30명에게 8000달러, 근로복지생 3명에게 3600달러, 제임스월드와이드 장학생 10명에게 1000달러, J&J장애인 2명에게 2000달러, 문과운데이션 장학생 10명에게 1000달러, 긴급지원 대상 추가 지급 10명 등 총 80명에게 13만8천 달러의 장학기금이 지급됐다. 이로써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은 출범 2001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총지급액은 2,525,000달러다.

이종희 목사는 "밀알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9년째 계속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

오늘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사랑하시는 자들이라 생각된다. 장학생들로 인해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남가주밀알 실행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남가주밀알 전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돼 '밀알스토리' 영상 상영과 이준우 강남대 교수의 기도, 김영길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영길 목사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학금을 마련해 매년 수많은 장애인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한 행위이며, 2020년 밀알장학금을 수여받는 80명의 학생들도 큰 믿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나누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며 장학생들을 격려, 축복했다. <박준호 기자>



지금이 로버트케네디커뮤니티학교와 MOU를 맺은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지금이 로버트케네디커뮤니티학교와 MOU를 맺은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지급, LA 저소득층 지역학교와 기부협약 체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직접판매 유통기업 지쿰(대표이사 서정훈)이 LA에 위치한 로버트케네디 커뮤니티 학교(RFKCS)와 기부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쿰 미국지사는 이번 기부협약식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지역 및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쿰은 2017년 미국 지사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동반성장을 통한 가치창조를 실천하고자 이번 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에 지쿰과 기부 협약식을 체결한 RFKCS는 2007년 미국 LA에 세워졌으며, 올 1월부터 매월 2천 달러(한화 약 231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된다. 기부금은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RFKCS는 LA 중심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집된 곳에 있는 캠퍼스로 낙후된 교육환경 속에 처한 학생들에게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설립됐다. 현재는 예술, 인문 학교 등 6개의 학교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분야의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쿰 미주총괄 김지숙 대표는 "이번 사회 공헌활동은 지쿰 본사가 추구하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실현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지쿰 미국지사의 성장과 함께 꾸준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지쿰>

서부교계 게시판

west

KAPC 2020목사·장로 기도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양수철 목사) 총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0년 '목사장로 기도회'가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진행된다. 동부지역은 2월 3일(월)-5일(수) Sandy Cove Ministries(60 Sandy Cove Road North East MD 20901)에서, 서부지역은 10일(월)-11일(화) Best Western Inn in Simi Valley(1755 Madera Rd. Simi Valley, CA93065)에서 열린다.

▲문의: 동부(267)678-8302채왕규 목사, (267)605-6171백운영 목사 서부(858)945-5491최동진 목사, (310)986-9869이황영 목사

제13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제 13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가 1월 26일(주일) 저녁 5시 30분(저녁식사 4시) GIM(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회, 대회장 정윤명 목사) 주최로 샌프란시스코 인근 First Burmese Baptist Church(담임 Yishey Latt 목사)에서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역대하7:14) 주제로, 한국을 비롯 35여 다민족이 참여한다. www.vision.org

▲문의: (925)639-9527

넷캘 미디어트레이닝 워크샵

재미 한인 차세대 지도자 모임인 '넷캘(대표 이재훈 박사 NetKAL-The Network of Korean American Leaders)'이 글로벌 한인 차세대 지도자 재단(Global Korean Leaders Foundation) 후원으로 한인 커뮤니티 및 비영리단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미디어트레이닝' 워크샵을 31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선데이시니어클럽(3060 W. Olympic Blvd., Suite 120, LA)에서 개최한다.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자는 25일까지 예약하면 된다.

▲문의: (213)663-5777

신영각 목사 송별 및 은퇴예배

월서연합감리교회 신영각 담임목사 송별 및 은퇴예배가 26일(주일) 2부 예배(오후 12시)에 열린다.

▲문의: (323)931-9133

연합감리교회 코커스 연합전도집회

연합감리교회 코커스 주관 연합전도집회가 23일(수)부터 26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유성국 목사(전도하는교회), '전도하는 나' 저자이며 일정은 22일(수) 저녁 7시30분 드림교회(정영희 목사), 23일(목) 오후 7시30분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목사), 24일(금) 저녁 7시30분 로스펠리츠교회(류재덕 목사), 25일(토) 저녁 7시30분 벨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26일(주일) 오후 7시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문의: (323)382-0691로스펠리츠교회, (818)366-0089벨리연합감리교회, (626)965-9191남가주주님의교회, (858)279-9191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부부가 함께하는 영적태교 세미나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는 부부가 함께하는 영적태교 세미나를 25일부터 2월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에 갖는다.

▲문의: (434)660-3987

성화장로교회 선교사이야기 선교이야기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2020 네 번의 만남을 통해 듣는 선교사 이야기' 선교이야기를 26일부터 2월16일까지 매주 주일 갖는다. 일정은 26일 조성도/유사론 목사, 2월2일 이희수/정숙 선교사, 9일 최재민 선교사, 16일 박종필/임미정 선교사.

▲문의: (310)515-1191



LA비전교회 한부모가정모임 사역 건강과 행복 주제 세미나

'건강과 행복' 세미나, 강사 서흥제

LA비전교회 한부모가정모임 사역 개최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 한부모가정모임(담임 유호정 목사)이 주최한 '건강과 행복' 주제 세미나가 20일 오후 2시30분 의학전문가 서흥제 박사를 강사로 열렸다.

서흥제 박사는 "뇌졸중 전조가 생기면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물을 잘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뇌졸중 초기증세로는 △시각장애, 평상시 두통과 어지럼증, 임모양의 비대칭 △팔다리 감각이 떨어진다. 남성은 주로 왼쪽부분을 못쓴다. 한쪽 팔에 힘이 없어진다. 단

추를 잘 못 끼운다. 물건을 잘 놓치고 기억력이 약해진다. △언어사용이 어려워진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이런 증상을 겪게 되면 3시간 이내 병원에 가야 하며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뇌졸중 원인은 음식의 서구화, 지방질 많은 음식 섭취이며 발생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이며 "예방법은 운동과 식이요법"이라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무대예술인그룹 시선 후원인의 밤

무대예술인그룹 시선 후원인의 밤

무대예술인그룹 시선(대표 클라라김) 후원인의 밤이 19일 오후 5시30분 용수산에서 열렸다.

클라라김 대표는 "지난 한해 뮤지컬 도산을 창작하고 무대에 올리는 동안 도산팀에 배운 사람에게 감사하기위해 후원인의 밤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뮤지컬 도산을 공연하게 됐다. 좀 더 발전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도산 영상 소개, 전지수 안무 감독, 안무가 전효인의 '고갯길' 창작무용, 최원현 '신세계' 시월의 어느 멋진날에' 축하, 무대예술인그룹 시선소개로 이어졌다. 이어 클라라김 대표의 감사

인사와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3년 말프란 선생이 축하했다. 그리고 다니엘김 형제가 축하를 불렀다.

이날 행사는 이기영 목사 축복기도로 마쳤다.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은 1919년 3월 3.1만세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클라라김 신원철 윤국형 전창한 최원현 등 도산 주역이 만든 비영리단체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시선 맞추는 모든 곳에서 무대예술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우리 삶과 역사 재조명, 미래 이끌 후진양성을 위해 세운 그룹이다. <박준호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mission 선교의 창 (13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연합 기도를 통한 선교 도전

2020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다. 올해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이 밀어닥칠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크리스천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항해 왔는가? 한마디로 각개 전투식이었다. 이 방식으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파괴적일 수 없다. 우리는 속히 교회 힘의 분출을 막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분파주의, 현세주의”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익히 아는 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와 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팔팔 힘을 합쳐도 대적하기 버거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론적 선교 완성을 위해 어떻게 연합적 대오를 펼칠 것인가? 여러 방안이 있지만 가장 쉽고도 강력한 것은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1. 정한 시간 기도의 성경적 근거

시편 55:17, 다니엘 6:10에서 추론해보면 구약의 성도는 정규적인 기도시간이 하루에 세 번 있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으며(MK1:35) 또 습관을 좇아 감란 산에 가셨다. 그곳에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였다(NK22:39-42).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구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는 구절이 있다. 그들도 기도관습에 익숙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니엘 역시 습관을 따라 정한시간에 기도를 했다. 그는 포로 신분으로서 막중한 일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

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가지들의 간격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 것이다. 이처럼 성경 속의 다수 인물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를 했다.

2. 유대인의 종교전통

유대인은 42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면서도 흠여짐을 면하며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들이 생존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이 있었으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지구촌 어디에 있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공통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이었다. 그들은 지금도 하루에 세 차례씩 기도를 한다. (1) 아침기도(샤하리트); (2) 오후 기도(민하); (3) 저녁 혹은 밤 기도(마아리브)이다. 그들은 신성한 기도시간을 위해 몸을

강성원리 중 하나는 하루 5번씩 정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도생활은 그들 국가와 민족 가운데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방향을 향해 지구촌의 모든 무슬림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 매일 때가 되면 다섯 번 기도시간을 알리(ادذان, adhan) 아잔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진다. 그러면 성인 무슬림은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설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할지라도 행동을 멈추고 기도 풀이라도 잡아야 한다. 길게 횡으로 누워서 함께 절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이들은 이슬람의 율법에 포로가 되어 있다. 누가 감히 이 기도 문화에 역행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만일 저들에게 기도규례가 없다면 어떻게 동질성이 유지되며 이렇게까지 팽창해 올 수 있었을

할 때 복음 안에서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인간은 본시 연약하다. 육신의 소욕은 끝없이 편함을 추구한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며 높고 싶고, 누우면 잠들기 마련이다. 이때 기도시간이 도착 화되어 있다면 습관을 따라 참석하게 되고 새롭게 소생하기도 한다. 다행히도 한인교회는 새벽기도회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다. 이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숫자는 줄어들고 그 열기도 식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기도에 대한 다른 생활문화가 규례로 되어 있지 않다.

5. 연합 기도를 위한 10-10 Prayer Movement

만일 지구촌의 모든 크리스천이 인종과 국가 그리고 남녀

여 오로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기에 어디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만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한 마음으로 10분씩만 외치면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될까? 레이저 광선이 철관을 뚫는 것처럼 선교적 돌파가 일어날 것이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맺는 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처에서 낙오 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이때에 우리 크리스천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정 세상을 선도하며 이데에서 대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내 가족 내 교회가 아니기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지역교회의 울타리를 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며 함께 부르짖어야 한다. 특히 종말론적 선교는 선교사라는 대표선수 몇 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스탠드에서 구경꾼으로 있는 관중이 다 영적 전사로 동원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 10-10 Prayer Movement!가 한 대안이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슬람처럼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다. 이는 단지 선교완성을 향한 자율적 성령운동이다. 다니엘이 목숨을 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최고의 선교적 도전이 될 것이다.

jsong007@hanmail.net

돈보기로 헛살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열량이 발생한다.

정한 시간에 연합기도는 레이저 광선처럼 막힌 담을 뚫을 수 있다.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매일 정한시간에 공동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깨끗이 하고 웃을 단정히 입는다. 어떤 장소이건 청결해야 하며 사람을 자극하는 향내나 냄새가 나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과 유대인은 이렇게 기도의 생활문화가 규례로 정착해 있다. 이는 그들에게서 부자유의 굴레가 아니라 힘을 공급받는 최고의 방편인 것이다.

3. 이슬람의 강성원리

이슬람의 교세와 그 성장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이들의

“?” 하는 것이다.

4. 정한 시간 기도생활문화

우리 기독교는 복음 안에서 자유이다. 구태여 행위적으로 규례에 묶일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각자 믿음의 분량과 철학대로 신앙 활동을 하면 된다. 이것은 신앙의 대 원칙이다. 하지만 인간을 경성케 하고 언약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견인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생활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아니

노소를 막론하고 정한 시간에 공통의 기도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아마도 지옥문이 흔들릴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느끼며 성령의 진동하심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슬이 열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지 않는가? 군대의 힘은 조직화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운동을 펼쳐볼 필요가 있다.

밤 10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를 마감할 때이며 비교적 여유롭다. 이때 10분을 할애하



세계한인언론협회 주관 제5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 수상작

‘내게 힘을 주는 교회’ 를 읽고

우수상 김장혁 (엘로힘순복음교회 목사)



아마도 계속 개혁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 다시 꺼내고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책이 될 거 같다...

책의 제목부터 ‘나에게 필요한 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궁극증이 들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고서 교회개혁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지만 여간 쉽지 않았다.

더욱이 교과과목에는 ‘교회개혁학’ 과목 같은 것은 없고, 실제로 시작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의 인도로 교회개혁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어려운 건 스스로 마음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마음이 끌림이 있었다. 힘을 주는 교회라...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재능도 없는 내가 교회를 개혁하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았다. 개혁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우울증까지도 걸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이 생겼고, 성경을 찾아보니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적인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 초대교회는 죽음의 위협까지 있는 힘든 상황이었는 데, 사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은 바로 기도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다.

개혁교회 관련 책들을 보고, 성장한 교회들을 보니 공통점은 바로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어떤 교회는 담임사역자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다. 주님께서 다시 기도에 집중하고 열정을 쏟으라라고 이 책을 읽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한홍 목사님 프로필을 보고서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석사와 풀러대학원에서 교회사 박사를 공부하신 것을 보고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으시고, 말씀이 더 중심이시겠구나 생각을 했다. 풀러 교회사 박사의 경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기본으로 5개 국어를 공부해야 하고, 방대한 교회사 자료

까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깊이와 말씀에 깊이 없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을 읽을수록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시면서 깨달으신 것들이 녹아있어서 연신 줄을 치면서 읽었다. 그만큼 마음속이 다가오는 것들이 많았다.

그 중에 한 가지는 92쪽에 기도하면 마음에 독기가 빠지고, 두려움과 불안감, 슬픔이 떠나고 담대함과 평안함과 충만함이 생긴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역시 기도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겨야 되는구나 확인했기 때문이다.

개혁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악조건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개혁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획을 하고 했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니 인간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았다. 그냥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겼다.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마음을 주셨으니, 다시 주님께 물어보아라”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보다 내 마음속에 충만함을 주셨다. 용기와 감동을 주셨다. 끌어오르는 감동과 에너지 주셨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와 감동이 생기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한홍 목사님 책에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래 더 불같이 기도하자. 성령의 불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겨내자”라는 마음이 생긴다.

신약의 사도들도 바로 이러한 기도의 힘,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나 싶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누가 용기를 내고 담대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기도로 성령 받기 전 예수님 앞에서 3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3천명 앞에서 설교하는 그 담대함과 용기, 인간의 용기와 담대함이 아닐 것이다.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셨던 담대함과 용기가 마음속 깊이부터 주체할 수 없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이 부족한 나에게 매일매일 필요하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더 불같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또 마음에 공감되고 다가왔던 부분은 283쪽에 요한복음 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는 구절과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한 한홍 목사님의 고백이 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 같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따르

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 위에 말씀처럼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된 것이다.

그러면서 한홍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이, 교회의 길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한홍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같았다.

아마 한홍 목사님도 풀러 교회사박사까지 공부하고 한국에 가셨을 때, 이제는 힘든 공부 다 끝났으니 좀 편하게 사역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교회개혁을 시작하셨으니, 어떤 이유로 교회개혁을 시작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가장 은혜가 되면서도 부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개혁이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만들어가야하기 때문이다. 그런 힘든 교회개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셨다면 이 요한복음 21:18절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셨을 거 같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길이, 교회의 길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자 했던 때가 생각이 난다. 목사님이신 어머니를 통해서 신학공부를 권유 받았지만, 나는 한 번도 신학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군대를 가고 힘들고 외로운 마음에 교회에서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그것이 단지 어머니가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군대에서 보니 목사

님들이 장군들한테도 대우받고 인정받는 모습이 좋아보였다. 더욱이 군대를 제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정하니 미국의 유학년도 열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니 뭔가 잘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과거의 더욱 부족한 내가 보였다. 하지만 베드로나 한홍 목사님까지는 안 되지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고 개혁교회를 시작해보니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구나, 조금이나마 ‘목회자의 길이, 교회의 길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가야할 길들도 많지만, 결국 ‘내가 점점 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들이 나에게 때로는 도전을 주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더욱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은 것들이 많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아서, 오랜 만에 책에 밑줄을 치면서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었다. 비록 책으로나마 한홍 목사님이 신앙생활과 목회생활, 교회를 개혁하시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어서 감사하다.

또 이렇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마도 계속 개혁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 다시 꺼내고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책이 될 거 같다. 그러면서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가정선교(1)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 들어가는 말

급변하는 사회변화로 최근에는 탈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세태와 지구 환경오염이라는 위기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감각적 영상매체 시대를 배경으로 자란 소위 말하는 X세대, 혹은 신세대 대부분은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이름하에 탈 결혼(비혼), 무자식의 개인의 완성추구에만

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정은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단위입니다. 가정의 갈등과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와 교회와 국가도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같이 가정은 가족의 행복과 휴식(쉼)의 터전이고, 가장 소중한 선교지이고, 국가의 국력을 배양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에 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

자와 평신도를 위한 7번의 '가정선교세미나'를 가지면서 1년 반 동안 칼럼 연재를 쉬었다가, 이제 미주 최대 기독교 신문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가정선교 칼럼을 연재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년간 연재되었던 150여 편의 가정선교칼럼을 다시 정리, 수정, 보완, 완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3가지 주제, 즉 1. 가정 2. 가정선교 3. 가정문제 해결방안 순으로 연재하면서, 기타사항으로 효도

가정,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근간 이루는 가장 근본적 기초단위 가정선교사 세워 파괴된 가정 회복과 영적 결손 가정의 복음화

삶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극심한 세계적 불황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기 되고, 자녀들은 가정에서 양육하지 못하고 남에게 맡겨져 키워지는 베이비시터(Baby-Sitter) 아이들이 양산되어 청소년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부장적 남성상위의 부권이 상실되어 남녀평등의 시대가 아니라 여성상위시대로 탈바꿈되어지고 있고, 영양과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에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 가정은 의례히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위협한 발상입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상담과 성경적 상담, 그리고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사역자들과 교회가 이 같은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마음에 큰 충격과 찢림을 받고, 2007년부터 크리스천헤럴드와 7년 간, 크리스천비전신문과 4년, 지난 11년간 새로운 선교의 장(場, Field)인 '가정선교(家庭宣敎, Family Mission)'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가정선교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나 서적, 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경적, 선교적 차원에서 가정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뜻과 의도를 찾아서 가정선교칼럼을 적게 되었습니다.

및 노인문제, 부부(아내와 남편), 고부간 갈등, 동성애, 이혼, 자살 등의 가정문제들도 심도 있게 다루 보고자 합니다. 가정선교는 (1)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와 역할의 회복과 (2)추락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3)말세적 사탄의 가정파괴공작에 대비하여 가정의 파수꾼(Family Watchman), 가정의 지킴이(Family Keeper), 가정의 선교사(Family Missionary)를 세우고 (4)파괴된 가정의 회복과 영적 결손가정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이혼, 재혼, 혼외정사, 동성애(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LGBT) 문제, 결혼의 신평속도(비혼, 졸혼, 해혼, 휴혼), 근친상간, 일부다처제, 겁사돈, 가정폭력, 고부간 갈등, 스와핑, 문지마 관광, 동반자살, 기러기 아빠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무방비 무대책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4년에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쿠팡)를 발간했고, 3차례에 걸친 한국 집회(12교회)를 가졌고, 목회

공급적으로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전 가족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 가정선교입니다. 가장 시급한 목회현장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서의 가정선교교육과 목회자들의 가정선교에 대한 관심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선교 퍼주기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선교지에도 성탄의 기쁨이...



뉴욕 목회자 출신, 황영진, 황은숙선교사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 산골짜기 뽀뜨레리오스 마을과 산벨립페 마을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전파되어 금년에도 성탄의 기쁨이 아이들과 청소년, 부모들이 함께 모여 은혜로운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

금을 전달하고, 수고한 디렉터 나프탈리 현지교회 목사와 통역자 미사엘에게 수고의 선물바구니를 증정했다. 지난 성탄절 날에는 수도와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 마을에 살아, 한 번도 수도 산살바도

정소년들로 구성된 찬양팀은 조나단 팀장의 인도 하에 4명 연주팀, 4명 심어팀, 8명의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열심히 연습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롭게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다.

지난 성탄주일 예배 때에는 황 선교사 장남부부가 부처은 아동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어 아이들과 부모들을 기쁘게 했다. 예배 후 뉴욕에서 휴가차 고향을 방문한 우리 선교지에서 배출한 제 1호 미국유학생 보리스가 참석하여 감사인사와 미국생활과 신앙 간증을 하여 현지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 예배 후 준비해온 햄버거 점심식사를 제공해 모두들 기뻐하며 고마워했다.

23일(토) 저녁에는 현지인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되어 공동 운영되고 있는 뉴욕신대원과 월드비전신학교 금년도 학기를 마치고 종강식을 가졌다.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을 사명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업을 이수한 신학생 12명이 모여 피자파티를 하고, 신앙 간증을 나눈 후, 황영진 학장이 축서 개근,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을 보인 최우수 학생 플로라에게 상패와 장학



르 구경을 못한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초청해 엘살바도르 한인장로교회에서 성탄절예배도 드리고, 수도 구경 문화체험도 하는 성탄절 행사를 가졌다.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초청으로 성탄절예배 특별한 양 순서를 맡아 감동의 찬양 3곡을 불렀다.

진수성찬 점심대접을 받고 소화도 시킬 겸 수도시내가 휘하 내려다보이는 볼칸에 등정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탁트인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이 어우러진 그라비아몰과 물티 플라자에서 아이사 광고 하고 사진도 찍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나도 즐거웠다.

저녁시간이 되어 푸드코트에서 각자 취향대로 식사를 오더해 맛있게 먹고, 렌트한 두 대의 밴으로 무사히 산골짜기 뽀뜨레리오스 마을로 귀가했다.

금년에도 성탄절행사를 후원해주신 귀한 선교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차 엘살바도르 선교사역을 시작하는 새해의 소원은 가난과 무지와 성폭력,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나 꿈도 없이 절망가운데 살아가는 꿈나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예수복음으로 교육하여, 꿈과 천국소망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지도자로 양성하는 사립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구입부터

학교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여호와이레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방에 계신 교회들과 선교 동역자님들께, 국가이름이 "구세주"인 엘살바도르 복음화 양 순서를 맡아 감동의 찬양 3곡을 불렀다.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hjy0691@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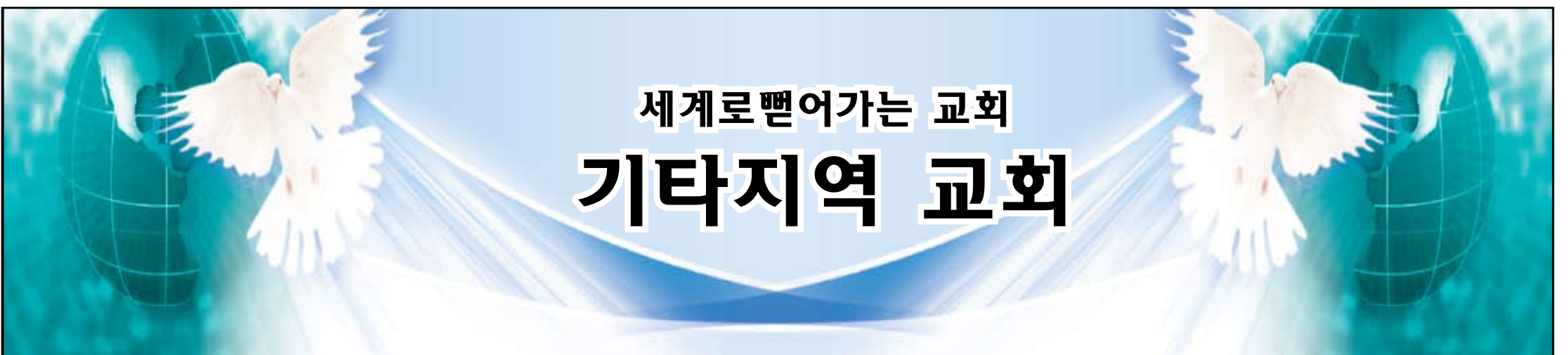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names of pastors and service times.

영어로 보는 성경 (50)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Galatians 2:15,16

15) We who are Jews by birth and not sinful Gentiles 16) know that a perso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faith in Jesus Christ. So we, too, have put our faith in Christ Jesus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because by the works of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NIV 2011)

WORD & IDIOM

* Jews: 유대인 * by birth: 타고난 * sinful: 죄 있는, 죄 많은 * Gentiles: 이방인, 비유대인 * justify: 무죄로 하다 * put (one's) faith in ~: ~를 신뢰하다, 믿다 * (so) that A may ~: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GRAMMAR

15) We who are Jews by birth and not sinful Gentiles
우리는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리고 죄 있는 이방인이 아니다

* <who> 이하 <sinful gentiles>까지는 앞의 주어(We)를 설명하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연결된 관계사절로 이 부분의 해석은 형용사적으로 한다.

16) know that a perso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 by faith in Jesus Christ.
(that 이하를) 안다 ~를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그리스도를 믿음으로) => 15) 태어난 유대인이며 죄 많은 이방인인 아닌 우리는 16)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에 의해서(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안다.

* 16절의 <that>이하는 15절에서의 우리(We)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but>과 <by faith in Jesus Christ> 사이의 ()안에 <a person is justified>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그 의미를 살려 해석을 하라.

So we, too, have put our faith in Christ Jesus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왜? that 이하를 위하여)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에 의하여(그리스도를 믿음으로)

and () not by the works of the law,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이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 <and>와 <not by ~> 사이의 ()안에 <(so) that we may be justified> 넣어 해석하라. 문법적으로는 <(so) that A may ~: A가 ~하기 위하여>를 먼저 해석을 하지만 이 문장의 경우 그 내용이 너무 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so) that A may ~>를 <이는 ~하기 위해서이다> 정도로 하고 문장을 나누어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because

왜냐하면(위의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유)

by the works of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STUDY & THOUGH

■ 위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규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적 규례와 도덕적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사고와 이에 따른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의 폐기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규범으로써 그러하다.

■ Only by faith can humans be justified before God.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성령의 세례(막1:1-8)찬117장

마가를 통한 복음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첫째, 죄사함을 주는 분이셨습니다(4). 요한의 물세례는 죄사함의 증표로서 그리스도를 통합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길잡이로 온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주십니다. 둘째,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6). 죄사함은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아침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죄를 인정하고 슬피하며 죄를 다시 범치 않으려는 결단으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짐을 가리킵니다(행20:20). 셋째, 그만이 성령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9).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능력을 갖도록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 속에 인을 치십니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화 물세례의 의미(막1:9-11)찬214장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교회의 물세례와 어떤 관련을 갖습니까? 첫째, 그것은 죄를 씻는 상징입니다. 구약의 정결규례에서 유래된 물로 씻는 행위는 죄를 씻는 상징주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 두 물세례는 서로 연속적 성격을 갖습니다. 둘째, 이것은 교회의 일원임을 표시합니다. 교회의 물세례는 세상과 구별돼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

임을 외적으로 확증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백성의 모임임을 세상에 들어내는 일입니다. 셋째, 이것은 성령세례를 받은 자의 확증입니다(10).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성령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물세례가 효력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거룩 중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 성령이 이끄시는 구속(막1:12-13)찬175장

물세례를 통해 성령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성령의 이끌림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12).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백성의 연약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둘째,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독과 고난은 시험을 통한 연단의 기회로 주어졌지만 사탄은

그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기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첫 아담은 실패했어도 둘째 아담은 그 요구를 모두 이뤄 진정한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셋째,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천사들의 섬김이 광야에서의 섬김으로 나타난 것은 완성된 구속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현실의 고난에서 기이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 그리스도의 증거(막1:14-15)찬186장

광야에서 구속자로 확증된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때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상징과 모형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됐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종말시대에 성취될 예언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마지막 구원의 때라는 선포이기 때문에 영적 각성을 요구합니다. 둘째, 하나님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은 하나님나라의 왕이 오셨기에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심은 그의 임재와 권위와 통치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나라 백성이 되려면 회개와 믿음이 따라야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속의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그 나라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금 사람 낚는 어부(막1:16-20)찬355장

구속의 완성은 여러 과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사도를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장차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나라의 통치를 이루시는 기초를 세우시는 일이었다(엡2:20) 동시에 영혼을 구원할 교회가 따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떠한가? 첫째, 죄로부터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는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주 임무가 죄에 빠진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물을 버려야합니다(18). 주의 부르심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기 때문에 자기의 하는 모든 일을 버릴 수 있어야합니다. 셋째, 즉시 주를 따라야합니다(18,20). 그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응답해야합니다. 그가 구속의 긴급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토 귀신을 굴복시키는 권세(막1:21-28)찬388장

구속주 그리스도는 어떻게 귀신을 굴복시켰습니까? 첫째, 교훈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20-21). 당대의 최고의 선생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놀랄 정도로 그의 교훈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확증했습니다(막16:20). 그 교훈인 성경은 지금도 동일한 권세를 가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24). 마귀의 입

을 통해 그가 구속자임을 증거하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온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함으로써 소망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나라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28). 그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므로 하나님나라가 임했음을 알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의 별다른 삶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장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투고칼럼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

킹데이의 이변

M.L.King의 생일(1929.1.15)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지난 월요일(1.20), 버지니아의 주도인 리치몬드(Richmond, Virginia)에서는 전 미국을 주목케 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버지니아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State of Emergency) 긴장한 경찰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국에서 모인 2만 여명의 총기옹호자들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서 깊은 버지니아 주 의사당을 둘러싸고 총기 소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던 위기의 시간이 잘 넘어갔다. 몇 년 전 동해병기 표기운동을 하면서 많은 한인들에게 친숙했던 아름다운 주 의사당 건물 주위는 삼엄한 경비망으로 차단되었다. 무기를 소유하지 않고 의사당 밖 경내로 들어간 6000여명과 총기를 소지하고 시위를 한 15000여명의 데모대는 담장 밖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위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일반 시민의 접근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갈 수는 없었으나, 헬리콥터를 동원한 지역의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현장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지난 해 선거에서 상,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 주의회와 역시 민주당인 주지사가 단단히 연합해서 이번 연초 회기에서 완만한 총기규제법을 상정하게 되었다. 엄청난 규모의 데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법안은 주의회에서 상정되었고 통과되었다. 리치몬드 지역의 열 다섯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교회협의회(회장 전은기 목사) 신년 축복 성회가 열린 주예수교회에 모인 지역 한인들은 이러한 사태를 주시하고 함께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동기도를 드렸다. 지역 교회연합체인 Interfaith of Greater Richmond에서는 감리교회에 모여 초교파적인 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버지니아 주는 미 전역에서도 총기판매가 가장 활발한 곳이며, 동부 지역에서는 범죄조장에 기여한다는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앞으로 미 전역의 총기규제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워싱턴DC 살인사건에 사용된 총

기의 47%가 인근의 버지니아 주에서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오명을 벗기를 바랐던 것이다. 심지어 뉴욕시티에서조차 버지니아의 느슨한 총기규제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항의할 지경이 되었으니, 입법자들은 적당한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를 틈틈이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버지니아 비치에서 벌어진 공공기관에서의 총기 살인사건 후 주지사가 새로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다가 전국총기협회(NRA)의 로비로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하고 후퇴하였다가, 이번 2020새해의 회기 시작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도 대단하였던 것이다.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저항은 전국총기소유자협회 등과 같은 단체도 협력했을 뿐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인 White Supremacy 옹호자들이 가세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수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샬롯츠빌의 사건을 일으킨 백인민족주의자(White Nationalism)들의 리더는 이번 사태에 공감을 표하면서 동원에 적극 협력하였다. 사전에 치밀한 안전장치와 공권력을 집중 투입한 덕분에

그들의 총기를 앞에 맨 대담한 과시와 피켓과 구호를 앞세운 노골적인 반대행동도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도 많은 총기살상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지 옹호자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줄기차다. 스스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한 민병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들의 굳건한 신념과 상업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맞물려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총기소유 옹호론자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데(Unrest)가 킹데이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미국의 역사를 되돌리는 사회현상을 접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이다. 미국의 사회발전을 후퇴시키는 먹구름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높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넓이', '자신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정 삼각형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Beloved Community)를 궁극적 목표로 한 킹의 인권운동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에 일어난 이러한 사태가 암시하는 의미가 크다. 갈수록 양극화 되어가는 세계적인 사회현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추구한 킹의 보편적 인류애가 점점 더 절실히 다가온다. 워싱턴의 광장에서 손을 끼우고 내려다보는 킹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들은 평화의 사회가 도래하도록 끝까지 가야합니다. 그 날은 백인들의 날도, 흑인들의 날도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날입니다"(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원로칼럼

에필로그-더 하고픈 말(하)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6)은퇴를 준비하라. 목회는 정년이 있지만 사역은 정년이 없다. 제도로 정한 정년을 피할 길은 없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난 멀어져, 벌써 준비를 하라고?" 이런 사치스런 발상이다. 정년을 앞둔 사람에게겐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아니라 천년이 하루와 같다. 축지법마냥 쉽게 빨리 그날이 온다. 은퇴 후 뭘 할 것인가? 사역을 찾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1935년생인 김명해 씨 만 80세 노인이다(2015년 당시: 편집자주). 30년간 교직생활을 끝내고 은퇴했다. 그는 지하철 택배기사로 취직, 고객들의 짐을 지하철을 이용해 배달하고 있다. 하루 수입은 4-5만원 정도, 매일 정시에 출근하니 건강에 좋고 돈 벌어 좋다고 했다. 그의 일하는 좌우명은 '체면이 밥 먹여 주냐'라고 했다. 올해 80세된 이백희 씨 이야기다. 사업 실패 후 부부가 산을 찾아 살고 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7년째 집을 짓고 있는데 완성되기까지는 3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며 "작품이 완성되면 심겁다. 과정이 신기하고 기대감이 있다"는 말을 했다. 필자는 80세 두 노인의 이야기 속에서 불굴의 의지와 미래지향적 삶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슴에서 '쿵'하는 울림을 들을 수 있었다. 먹고살 것도 준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은퇴! 예외자는 없다. 감사, 감사 또 감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은 곧 나의 고백이며 간증이다. 폐포 같은 나를 용도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 그 오늘까지 활용하신 그 은혜, 크고 넓고 깊고 높다. 감사 드릴 뿐이다. 부족한 나를 위해 내조자, 동역자, 친구, 위로자로 함께해준 아내, 그리고 탈 없이 뒤편에 준 자녀들, 생각할수록 고맙고 또 고맙다. 40여 년 따르고 고락을 나누고,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준 충신교회도 감사한 사람들이다. 몸담았던 교단과 한국교회, 관용과 사랑에 감사드린다. 그뿐인가? 허물을 탓하지 않고 감싸준 친구들, 동역자들, 이웃들..... 감사의 조건을 셀 수 없다. 한국교회는 타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정의 힘을 발휘해 거듭나야 한다. 한국교회는 그럴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하여 교회가 동네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되길 희망한다. 모 교회는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제반조건을 갖추고 그 일을 시작하려는데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시위가 유행처럼 번지는 세태이긴 하지만 '교회건축 대환영, 절대지지, 적극 협력'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날이 오면 정말 좋겠다. 그건 우리 하기 나름이다.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지도력이 자리 잡고 교인들의 삶이 바르게 될 때 그런 세월은 자연히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교단과 연합기구가 이해와 자존심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하나 됨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결코 아무개 때문에 교단이 분열됐다든지 연합체가 깨졌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태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 지금도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돌이키고 순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편집자주: 지금까지 저서 '완주자의 노래' 연재를 허락하신 박종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허큘러스, 해지펀드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허큘러스 투자회사(회장 제임스 맥도널드) 해지펀드 투자전략 세미나가 19일 오후 1시 라데라랜치에 위치한 허큘러스 투자회사 지점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인 담당 실비아안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실비아안 부사장은 "타 해지펀드 회사에 비해 허큘러스 투자회사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타 회사의 에이전트들은 고객의 수익과 상관없이 커미션을 받지만 허큘러스는 고객이 투자한 비용을 회사의 비용이라 여기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이며 고객의 상황에 맞는 투자전략을 세워 그것에 맞는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부사장은 "허큘러스 투자회사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 영국 등 해외에도 지점이 있는 글로벌 회사"라 소개하고 "저희 회사



허큘러스 투자회사 해지펀드 투자전략 세미나
는 20년 이상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임직원이 일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학위과정

국제항공대학(원) / 경영대학(원) /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 상담대학원 / 교육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 신학대학(원)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소,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U - 글로벌리더십연구소,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